



코스피 2103.61 (+24.57)	코스닥 656.95 (+17.66)
금리 (국고채 3년) 1.17 (+0.03)	환율 (USD-달러) 1210.30 (-9.90) (25일)



[산업]
LG화학
美 루시드 차에
원통형 배터리 독점공급
06

올 감사보고서 기한 연장

금융위, 증선위서 검토

중국에 자회사 둔 기업부터
대구·경북 기업까지 포함

〈단독〉 금융위원회는 26일 증선위를 열어 '감사보고서' 연장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제재를 가하지 않는 '노 액션 레터(N o-action letter·비 규제조치 의견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당초 중국에 주요 자회사를 둔 기업들만 대상이었으나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업지를 둔 기업들도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도보팅이나 법적인 부분은 법무부 소관이라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자투표 역시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추가적인 주총 지원책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대구의료원 방문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에서 유완식 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주총까지 흔들리는 코로나 대관취소에 상장사 '멘붕'

W 코스닥 흑역사

〈中〉 주총대란 현실화

한국사이버결재·엑시콘 등
주총장소 대관취소 통보받아
새도보팅·전자투표 의견도

코스닥 상장사들이 최근 주총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 측으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우려로 '대관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총 장소를 다시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총 장소를 다시 잡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장소 변경 시 공사까지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주총 대란이 현실화됐다.

사업보고서 작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져도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소재 기업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사이버결재, 엑시콘, 유니트론텍 등 코스닥기업이 주총 장소로부터 '대관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주총 장소를 정하지 못한 기업도 다수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총 행사를 꺼리기 때문이다.

◆ "다시 이사회 소집을"... 상장사 난감
기업들은 주총 장소를 다시 찾아 나섰다. 코스피 상장사와 달리 코스닥 상장사들은 회사 내부에서 주총을 여는 것도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다.

문제는 다시 주총 장소를 잡는다고 해도 이사회 소집부터 정정공시까지 다시 해야 한다. 또 주주에게 우편을 보낸 기업들은 장소 변경을 알리는 우편을 또다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찮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대부분 건물 이 주총장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정 안되면 회사 내부에서 해야겠지만 내부 직원들의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 좁은 장소에서 진행하면 감염 우려가 더 커서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의결권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시적으로 새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을 허용하거나 일괄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 감사보고서 작성 난항

주총장소를 구해도 또 다른 난관이 있다. 바로 감사보고서 의결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한창 바쁜 감사 시즌에 출장을 가지 못하고 문서 업무만 볼 수 있는 상태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회계법인의 감사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손엄지 기자



"이 난리 언제 끝날지"... 생필품 사재기

코로나 감염 불안감에 구매행렬
컵밥·라면·생수 등 판매량 급증
이커머스에서도 조기 품절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생필품 사재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 시작된 현상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되더니 온라인까지 소비가 급증했다.

지난 주말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코로나19에 따른 휴점 등이 겹치면서 전자 상거래 생필품 판매가 수배 가까이 늘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커머스는 주문량 급

증 품목들의 배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이마트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신장률을 비교한 결과, 쌀 45%, 생수 20.5%, 라면 37%, 물티슈 16.6%, 즉석밥 23%, 통조림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성수점·킨텍스점·비산점·칠성점 등이 임시 휴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매출은 되레 늘었다.

롯데마트도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생필품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컵밥은 전년 동기간 대비 68.9% 늘었으며, 라면은 47.9%, 생수는 16%까지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온라인상에서도 생필품들은 조기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SSG닷컴의 생필품 판매 역시 급증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라면 판매가 전년 동기(2019년 2월 20일~24

일) 대비 343% 증가했고 통조림은 433.8%, 생수는 287.9% 신장했다. 또한, 즉석밥·레토르트·가정간편식(HMR)은 261.4%, 쌀은 241.1%, 채소류 193%, 화장지·물티슈 136%, 세탁·주방용품 95.7%씩 증가했다.

SSG닷컴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 28일 이후, 이 측배송 주문 마감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3%선까지 상승했다. 특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주말 이후 전국 평균 주문 마감률은 99.8%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측배송 마감률은 전국 평균 80%선임을 감안하면 거의 20%가 더 늘어난 셈이다.

(3면에 계속)

/김민지·조효정 기자 kmj@

〈코로나19 관련기사〉
2~4, 6, L2~L7면

소비심리 급랭... 메르스 이후 최대 낙폭

한은, 2월 소비자동향조사

CCSI 96.9... 전월비 7.3p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MRE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서 메르스 때보다 전파 속도가 빨라졌고,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소비심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0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전월 대비 7.3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던 2015년 6월(-7.3포인트) 이후 4



년 8개월 만에 최대다.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지수는 지난해 10월(98.6)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져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한 지표다. 장

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를 기준값(100)으로 잡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해석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기 전인 지난 10~17일 진행됐다. 앞으로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까지의 수치라고 보면 된다"며 "최근 심각해진 부분은 사실상(이번 조사에) 반영이 좀 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지표가 하락했다.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66), 향후경기전망CSI(76)는 전월 대비 각각 12포인트 11포인트 떨어졌다.

/김희주 기자 hj89@

감기환자 몰린 선별진료소 ‘복새통’... 진단검사 과부하

면봉으로 받는 검사, 대기만 3시간 엑스레이 검사, 대기자 많아 포기 검사결과 받는데 이틀씩 걸리기도

정부규정 의사환자 포함 안되면 진단비용 16만원 자비 부담해야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밀폐실험실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분석에 앞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검체 분석이 24시간 이뤄지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검체 채취 기관의 과부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탓이다. 대기 시간은 기본 2~3시간, 검사 결과를 받는데 최소 하루, 길게는 이틀 가까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다. 코로나19 진단 비용 면제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잦은 충돌도 일고 있다.

◆검사 결과 40시간만에 받아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선별 진료소 가운데 검체 채취가 가능한 기관은 총 492개다. 이 기관들은 일부 감기 증상 만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복새통을 이루

고 있다.

최근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은 김모씨(42세 여성)는 “주운 야외에서 3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면봉으로 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엑스레이는 너무 대기자가 많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진단키트를 내놨지만, 검사 물량이 많아지면서 결과를 받는 시간도 하루 이상 걸리는 일이 다반사다.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정모씨(54세 남성)는 지난 23일 새벽 갑작스런 발열과 인후통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새벽 2시경 진단 검사를 마쳤지만, 결과는 24일 오후 4시가 돼야 받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40시간이 걸린 셈이다. 진단이 늦어지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커졌다.

정씨는 “다행히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지만 그 사이 시설 거주자들은 모두 패닉 상태였다”며 “만일 양성이었다면 밀접접촉자들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시

간을 40시간이나 방치한 것 나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단의학과 한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원래 6시간 안에 나오지만 결과가 애매한 경우 시간이 길어진다”며 “확실한 양성도 음성도 아닌 애매하게 나오는 일도 있기 때문에 검사한 기관에서 그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느라 재검을 하게 되면 40시간 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체 채취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지적했다. 바이러스를 채취하는 일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빠른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총괄조정관은 “매일 7000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부족하다”며 “다른 부분보다 검체 채취 역량을 키우는 데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6만원 진단비용도 부담

진단 비용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진단,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규정한 ‘의사 환자(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정한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원인 미상 폐렴환자다.

따라서 이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선별 진료소나 응급실 등을 스스로 찾아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는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검체 채취 외에 엑스레이 추가 검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은 약 16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5만원 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검사와 격리, 치료비용 등 전액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 비용은 개인이 선지급 해야하는 구조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김씨는 “정부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가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찾으라고 안내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사의 소견을 어떻게 받으라는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文 대통령 “코로나19 충분히 극복, 반드시 이겨낼 것”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 주제

“의료진·방역 인력에 존경·감사
가용인원 총동원 사태진정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를 찾았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대구를 방문해 지역민에 대한 위로와 함께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대구지역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며 지역민에게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의 말부터 건넸다.

이어 “코로나 19에 맞서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대책본부 관계자들, 범정부지원단과 민간기관들 모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밤낮없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헌신적 노력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인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문제는 시간과 속도”라며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25일) 저녁부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서 직접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입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나선 금융권 신한·하나銀, 신규대출 시행

금융권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면서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먼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유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리 우대, 분할상환 유예, 기한 연기 등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하나은행은 총 한도 4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분할상환 도래 시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포인트 금리를 감면해 준다.

주요 거점 점포에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을지로 본점과 명동 사옥, 세종시 등 3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美 증시 3% 급락에도... 코스피, 1.18% 기술적 반등

코스닥도 2.76% 급등
코스피지수 2100선 회복

코스피 지수 급락세가 진정되며 1% 이상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코스닥도 2.76% 급등했다. 전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증시가 3% 이상 하락했음에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2100선을 회복하며 4% 가까이 급락했던 전날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했다. 전 거래일보다

24.57포인트(1.18%) 오른 2103.61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승장을 이끌었다. 이날 개인은 6088억원, 기관은 1153억원을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

대폭 하락했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도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94%), 삼성전자우(1.85%), 삼성바이오로직스(3.9%), 네이버(3.53%) 등이 상승했다. 시총 상위 50위 기업 중 하락한 종목은 16개에 불과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공포 심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도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여전한 매도세로 일관했다. 전 거래일에 이어 769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19 감염자수가 미국, 유럽보다 일본, 홍콩 등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



25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1.18%, 2.76% 올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광 게시판. /송태화 기자

다”며 “신흥국내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자금 유출이 두드러져 주식자금 유입세는 당분간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반도체 지금 ‘소리없는 전쟁중’... 클린룸 뚫리면 ‘치명상’

한번 가동 멈추면 정상화 상당시간
시간·비용 등 막대한 손실 불가피
클린룸, 타액 노출·외부공기 차단
“감염 위험 낮지만 만일 대비 준비”



SK하이닉스 클린룸

/SK하이닉스 뉴스룸

반도체 업계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팹(반도체 생산 공장)을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정부 강제 사항이 아닌 데다, 이미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동을 이어가면서 방역을 할 대책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하에 1~2일간 방역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LG전자 인천 연구동 등이 실제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반도체 업계다. 반도체 생산 라인인 팹이 문을 닫으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피해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

니라, 패키징이나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도 해당된다.

당장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치열한 경쟁 중으로, 잠시라도 생산을 중단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이 이익을 고스란히 경쟁사에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된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량 중 2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도 만만치 않다.

생산 중단 기간도 다른 업종보다 훨씬 길다. 반도체 설비는 나노미터 단위로 극미세 공정이라 예민도가 높아서, 한번 가동을 중지하면 정상화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을 필요로 한다.

생산을 중단하기 전까지 라인에 올라 있던 웨이퍼와 고가의 화학물질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 웨이퍼 생산 공정 특성상 아주 잠깐이라도 중단되면 다시 사용하기 어렵고, 화학물질도 고순도를

유지해야 재사용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클린룸’이 피해 핵심이다. 반도체 팹은 공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까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든 클린룸으로 조성된다. 클린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방역조치를 시행한 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막대한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코로나19는 호시탐탐 반도체 사업장을 노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이전사업장에 이어 청주사업장에도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곤혹을 치렀다. 발빠른 조치를 취한데다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 삼성전자도 사업장이 3개나 있는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방침상 반도체 사업장은 만약 팹 근무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확인시 즉시 방역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단,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사업장을

무조건 폐쇄하지는 않아도 될 전망이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 관할 하에 1~2일간 소독을 진행한다”며 “해당 노출 장소 등을 파악하여 동선 등에 따라 조치할뿐, 사업을 해라마라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도체 팹 특성상 감염 위험이 희박하다는 점도 초유의 사태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클린룸이 구획별로 나뉘어 있고, 출입 인원은 타액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역복을 입고 에어샤워 등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클린룸 설비상 외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업계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가동을 멈추지 않고도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최악의 경우에도 팹이 멈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감염자를 사업장에서 최대한 막는 게 급선무”라며 “만일을 대비해 모든 조치를 완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날고 싶어요” 항공사 ‘소리없는 아우성’

입국 금지에 국제선 초토화
대구노선 등 국내선 황폐화



지난 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인천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늘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지난해 보이콧 재판으로 일본 노선이 대폭 축소되며 큰 타격을 입었던 항공업계가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가 중국 내 퍼지면서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대부분을 비운항 조치했다. 그런데 이번엔 국내에 확산세가 커지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노선이 운항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 항공사들이 당분간 ‘코로나 리스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 금지 및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한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킨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총 6개국이었다. 하지만 하루새 홍콩이 추가돼, 국내 항공사가 취항하지 못하는 지역은 7개로 늘었다. 이에 더해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시킨 나라는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11개국에 달한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항공은 이미 이스라엘 정부의 방침에 의해 사전 예고 없이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한국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한국인의 입국을 급히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인천-텔아비브 노선은 오는 3월 28일까지 비운항 조치됐다. 또한 몽골 정부는 지난 24일 한국발 또는 한국행 항공편의 운항을 3월 2일까지 모두

중단한다며 우리 항공사에 운항 중단을 요청했다. 국적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이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취항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몽골 정부에게 운항 중단 요청을 받은 것이 맞다”며 “일단 3월 2일까지 중단이지만 몽골 정부 측에서 기간을 더 연장하게 되면 또 그만큼 항공기를 띄울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항공기가 멈춰선 것은 국제선뿐만이 아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항공사들은 대구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노선들을 운항 중단하기에 나섰다. 이미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했던 기존 29개 노선 중 대부분이 잠정 중단됐으며, 단 4개 노선만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선은 티웨이항공의 대구-제주만 남았으며 국제선은 ▲사천항공의 중국 대용 ▲중국 동방항공의 중국 상해-위해 등 외항사만 운항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티웨이항공은 대구-제주 노선을 비운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매일 하루 5회 운항에서 감편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티웨이항

공은 대구발 전 국제선에 대해 비운항을 결정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1개, 국제선 14개 등 대구국제공항에서 최다 노선을 운항했었다. 이에 따라 대구국제공항의 운영이 잠정 중단되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대구공항이 운영 중단되거나) 그럴 수는 없다. 항공편이 없다고 해도 공항은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적 항공사뿐 아니라 외항사들도 한국행 노선에 대해 잇따라 잠정 중단을 발표하고 나섰다. 에어뉴질랜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오클랜드 직항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타이거에어 타이완도 오는 27일부터 3월까지 한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이밖에 필리핀항공·싱가포르항공·베트남항공 등이 한국행 노선의 잠정 중단을 밝혔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항공업계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제 회복 되기도 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며 “때문에 업계가 앞선 데 덮친 격처럼 더욱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이커머스업계 “생필품 안정공급 총력”

» 1면 “이 난리 언제 끝날지”서 계속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 일부 도시의 경우 지난 19일 오후 1시경부터 주문이 폭증하기 시작해 23일 기준으로 28일 금요일까지 지정 가능한 시간대 별 예약배송이 모두 마감됐다.

SSG닷컴 관계자는 “즉배송을 최대 20%까지 늘리고 있다. 직원들이 풀로 근무 중이지만 인력난이 심해 단기 인력을 섭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필품 안정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 라면과 생수가 동나고 있지만, 수량을 한정시켜놓고 주문을 받기 때문에 매일 제품을 채우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켓컬리의 경우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배송이 10%가량 증가한 데 이어,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7일 이후 일주일 새 하루평균 배송건수가 평년

(3만~4만 건) 대비 30%가량 급증했다.

다만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은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익일 배송주문만을 받고 있으므로 매일 주문 현황이 달라진다. 회사 측은 신선식품은 빠른 배송이 중요해 더 많은 주문을 받기보다 배송 역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 20일부터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과 생필품 주문이 전국적으로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쿠팡은 주문량이 급증한 품목의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배송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규 환자가 몰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고객들이 원활하게 생필품을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19일 이후 이 지역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어 조기 품절과 극심한 배송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김민지·조효정 기자 kmj@

LG 등 대기업 잇따라 ‘재택근무’ 돌입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잇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선택사항이었던 클라우드 시스템도 근무 효율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올랐다.

LG는 코로나19 위기 경보에 따른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임산부는 필요한 기간 동안 재택 근무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 요구도 수용한다.

재택기간 중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했다. 정상근무로 인정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감염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플렉시블 출퇴근제’를 통해 대중교통 혼잡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자들간 접촉도 분산했다. 사업장 사내식당 운영시간을 연장해 식사 시간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LG 테크 컨퍼런스도 취소했다. 미국에서 매년 수백명을 모아 진행하는 이 공개 석박사 유학생 채용설명 행사로, 앞으로는 국내의 행사를 그룹이 아닌 계열사에 따라 개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LG전자는 전사업장 외부 방문객 출입을 금지하고 임직원들 사업장 출장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재용 기자

“감염 확산부터 막아야”... 상반기 채용 연기·취소 잇따라 10대 기업 공채일정 ‘안갯속’

대기업 공채진행, 지난해와 대조적
10대 기업 중 공채일정 밝힌 곳 없어
구직자 61%, 코로나에 구직불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기업들이 잇따라 채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연기를 검토하면서 상반기 채용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2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주요 기업의 공채 윤곽은 2월 중 드러났으나, 올해는 공채를 연기하거나 전형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24일 채용 면접 일정을 연기했다. 채용 면접 대상자에 면접 일정을 연기한다고 개별 문자를 보낸 것. 지난해부터 수시채용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선발 중인 현대차는 올해 계획한 신입사원 각 채용부문에서 서류전형에 마친 뒤 직무별 면접을 앞

〈대기업 상반기 채용변경안〉

기업명	상반기채용 변경안
현대자동차	면접 일정 연기 합동교육 잠정중단
삼성전자	SW 역량테스트 3월 연기
LG그룹	상반기 채용일정 4월 이후로 연기
SK그룹	채용공고·필기시험 연기검토
GS그룹	계열사 채용일정 연기검토

/자료=인크루트

두고 있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6일 2020년 신입사원 합동 교육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3급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SW)역량테스트를 지난 15일에서 다음 달로 연기했다. LG는 올해 신입사원 공채일정을 4월 이후로 연기했고, SK그룹과 GS그룹 역시 계열사별 채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재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조되는 모습으로, 10대 기업 중 상반기 공채 윤곽을 밝힌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LG화학은 2월27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했고, 이어 SK그룹과 KT그룹은 3월4일부터, CJ그룹은 3월5일, 삼성은 3월12일부터 계열사별 순차모집을 시작했다. 롯데그룹도 3월20일, 포스코는 4월2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선발을 진행했다.

한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지난 11,12일 구직자 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1%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구직준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로는 ‘채용 연기’(25.8%), ‘채용전형 중단’(24.2%), ‘채용규모 감소’(21.7%), ‘채용취소’(9.0%), 등으로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마련한 버스에 탑승하기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中 유학생 휴학 권고에 대학들 재정 타격 등 사면초가

대학 中 유학생 등록금 최대 10%
온라인 강의 시스템 비용 부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에게 휴학을 권고하고 중국 체류 중인 유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학들은 휴학생이 증가해 가뜰이나 어려운 대학재정에 타격을 입는지 우려하고 있다. 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추가로 내놓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휴학을 권고하고, 현지에서 학업을 이어가도록 원격수업 등의 학사제도를 제공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장 바쁜 건 대학들이다.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로 이들이 대거 휴학할 경우 대학 재정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 대학들은 특히 올해까지 12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2중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들의 휴학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의 휴학 현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휴학 신청은 보통 개강 이전부터 개강 이후 3~4주까지 가능해 올해 개강

일정이 1~4주 가량 연기됨에 따라 3월 말경 휴학생 통계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휴학을 문의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휴학을 권고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총 7만979명 규모로, 1만9838명은 지난 2월 18일 이전에 중국에서 입국했고, 1만2753명은 국내에 머물러 총 3만2591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교육부는 중국 체류 유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온라인수업을 수강해도 학점을 인정받도록 대학 간 학점 교류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들이 휴학하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학점을 이수하려면 대학들의 온라인강의시스템이 필요하다. 성균관대의 경우 오는 9일로 개강을 미루고 이후부터 2주간은 자체 온라인강의 시스템인 아이캠퍼스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의 경우 구글 기반 온라인강의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구글 접속이 불가능해 새로운 시스템 변경과 서버 증설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의 휴학 권고와 온라인강의 수강을 대책으로 발표했으나, 정작 이에 드는 비용 부담은 대학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의료계,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대책 기자회견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현황 및 대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진단유전학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이 참석했다. /손진영기자 son@

“상업망 아닌 자치단체 활용 마스크 공급”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확산 기조에 추경 편성
조기극복 위한 대책 중점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기조에 경제 둔화가 예상되자 이같은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본예산 중 2차 예비비를 확보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 관련법안 처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과급 영향 최소화화 조 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도 이번 주 중 마련해 발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 임대료 인하 방안이 포함된 건물주·자영업자세제 지원 혜택도 추경에 포함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봉쇄 조치는 방역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나선다는 뜻이다. 지역 출입을 막는 게 아닌 방역망 강화 차원에서 나온 조치인 것이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 의무 공급이란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 공급에 나선다는 뜻이다. 마스크 수출 물량 역시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다중집회 역시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n@

정부, 대구·경북 집중관리 나선다

코로나 확진환자 977명, 사망자 10명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144명 늘어나며 누적 환자 1000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정부는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을 집중 관리해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97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하루밤새 6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후 4시 까지 8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날 경북 지역에서는 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경북지역에서는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22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예천 극락마을 중사자 1명도 감염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 지역에서 사망자도 2명 추가 발생하며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칠곡경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 중이던 여성 환자(68세)가 사망했고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중인 59세 남성 환자로도 사망했다.

대구 지역 확진자는 60명이 늘었다. 부산에서도 확진자 11명이 추가됐다. 경남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 국내 대형교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권선주, KB금융 사외이사된다

(전 IBK기업은행장)

여성 사외이사 2명 처음
오규택 교수도 후보 추천

KB금융지주는 25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오규택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를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외이사인 스티UART 솔로몬·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 등 4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권 후보는 기업은행에서 리스크관리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을 거쳐 여성으로서 국내 최초로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경영 분야의 전문가다.

오 후보는 공인회계사이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로 모자어족은행, 키움증권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했으며, 공적자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다.

KB금융 사추위는 지난해 12월부터 5년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유석렬, 박재하 사외이사의 후임 인선을 위한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



오규택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절차에 착수했다.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주체를 엄격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5년에 선임된 김유니스경희 이사의 2018년 퇴임과 동시에 최명희 이사를 선임하는 등 여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추위의 추천 후보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국내 금융 지주회사 중 여성 사외이사 2명이 재임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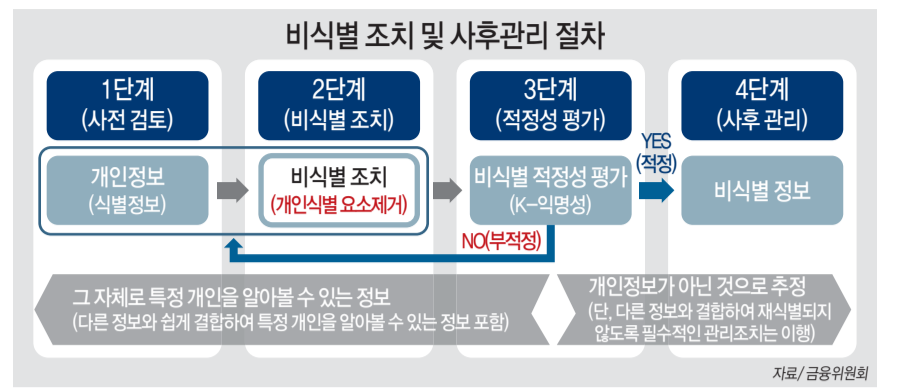
이를 통해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은

14.3%(1/7)에서 28.6%(2/7)로 높아지게 되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까지 목표로 권고한 여성 사외이사(Non-executive director) 비율인 40%에도 한 발 다가서게 된다.

KB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이사회가 전문성, 직업, 성별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사외이사의 전문분야가 금융경영, 재무, 회계, 리스크관리, 법률/규제, 소비자보호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외국국적 사외이사·여성 사외이사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사회의 다양성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사추위의 결정이 이사회의 다양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 후보 2인 및 중임 사외이사 후보 4인은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B금융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데이터3법 두고 기업들 '머뭇'

오는 8월 5일부터 데이터 3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 후속조치 시급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을 두고 기업들의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시행시기에 맞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지만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데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선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가명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가명정보는 기업·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데이터 3법 통과에도 기업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는 것. 데이터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당장 데이터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어디까지 해야 할 지부터 모호하기 때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기업이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명정보 특성상 가명정보를 여러 개 결합하거나, 가명정보에 추가 정보를 더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먼저 나서 이용하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존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담은 것도 움직임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이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재식별)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고의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과실이더라도 고의로, 악용하더라도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이지는 법무법인 리버티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가명정보가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과실로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개인정보가 확산될 경우엔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데이터 3법과 관련한 시행령, 가이드라인, 법 해설서 등 후속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려하고 있는 데이터 결합시 재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은행, 분산ID기술 적용 '모바일사원증'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의 분산ID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분산ID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신원증명(ID)을 관리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이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갖게 되며,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모바일 사원증서비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분산ID 기술을 기반으로 농협은행과 SK텔레콤에서 공동으로 구현했으며, 국내 최초로 분산ID 기술이 적용된 상용서비스다.

임직원 개인이 모바일로 신청·발급 후에 출입인증 및 출퇴근까지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으며, 향후에는 방문예약, 간편 결제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NH농협은행 장승현 수석부행장(왼쪽)과 SK텔레콤 오세현 전무가 출입통제 단말기에서 모바일 사원증으로 인증하며 출입하고 있다. /농협은행

Online tour advertisement for Onlinetour.co.kr. Features various travel packages for Europe, Australia, Japan, and other regions, including flight, accommodation, and visa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destinations.

美 루시드 후에 원통형 배터리 독점 공급... 크기 절반



美 루시드모터스 '루시드 에어'에 원통형 배터리 '21700' 공급기로 기존 배터리 보다 용량 50% 높여 전기차시장 모든 포트폴리오 확보

LG화학이 전기차 업체 루시드모터스와 본격 손을 잡았다.

LG화학은 25일 미국 루시드모터스의 전기차인 '루시드 에어' 표준형 모델에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금액은 계약상 밝히지 않았다.



LG화학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21700.

/LG화학

루시드모터스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로부터 10억달러(약 1조 1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생 전기차

업체로 올해 하반기 첫 양산차량인 '루시드 에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LG화학이 루시드모터스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는 '21700' 제품이다. 원통형 21700 배터리는 지름 21mm, 높이 70mm의 외관을 갖춘 제품으로 기존 원통형 '18650' 배터리(지름 18mm, 높이 65mm) 대비 용량을 50% 높이고 성능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21700의 상용화로 기존 18650에 비해 적은 수의 배터리를 연결해 원하는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김중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은 "루시드 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기존 파우치 배터리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적극 공략해 향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확실한 글로벌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로린슨 루시드모터스 CEO는 "LG화학과의 협업은 루시드 모터스가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고의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전기차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루시드모터스와의 공급계약을 기점으로 대형 파우치 및 소형 원통형 배터리로 양분된 전기차 시장에서 모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 대형 파우치 배터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위 20개 중 폭스바겐·르노·볼보·GM·현대 등 13개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으며 최근 GM과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하는 등 이미 150조원의 대규모 수주잔액을 확보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취임

(LS산전 회장)

"불확실성 시장, 힘 모아 해법 모색"

구자균 LS산전 회장(사진)이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자균 회장을 제 1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진흥회 임원으로 구성된 전기산업 발전위원회와 지난 11일 열린 진흥회 이사회를 거쳐 회장 후보로 추대됐다. 구자균 회장의 임기는 2023년 2월까지 3년이며 진흥회 병설기구인 한국 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도 겸임하게 된다.

구자균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국내 시장 침체 등에 더불어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융복합 기술 시대의 도래로 과거 어느 때보다 전기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



기 위해 진흥회 회원사가 힘을 모아 해법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기존 전기산업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 확보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구자균 회장의 취임으로 전기산업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진흥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회 관계자는 "구 회장은 지난해부터 국내 산업계 기술개발을 이끌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R&D 분야에 대한 의지가 크다"며 "LS산전은 구 회장이 CEO에 재임하는 동안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100대 혁신기업에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전기산업계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신동빈, 20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임원직 사임

(롯데그룹 회장)

과다검직 논란 해소, 변수 차단 해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0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임원직을 내려놨다. 신 회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던 과다 검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변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다음달 22일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계는 다음 달 예정된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됐지만 2013년 물러났고,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에는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



서 물러났고 지난해 말에는 롯데건설대표이사직도 내려놨다. 호텔롯데에서는 비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신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만큼 건설·부동산 유관 계열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배임 등의 명목으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나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텔롯데의 경우에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 예비심사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신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사내이사에서까지 물러나면서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주요 주주들로부터 공격받던 과다 검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최근 롯데쇼핑의 주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자로 바꾸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신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에서 대표이사를, 롯데칠성, 캐논코리아, 에프알엘코리아에서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민지 기자 kmj@

생산중단 현대차 포터, 하루 만에 재개

코로나19 발생 생산중단 공장 모두 가동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생산을 중단한 소형 트럭 포터에 대한 생산을 재개한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포터 부품을 생산하는 1차 협력사인 서진산업에서 코로나 19 사망자가 나오면서 공장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 25일 하루 동안 울산 4공장 42라인의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서진산업이 25일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현대차는 26일부터 포터 생산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진산업에서는 전날까지 야근했던 지게차 운전자가 지난 21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근로자가 뒤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서진산

업은 24일 하루 공장을 멈추고 근로자 280명에 대한 건강 검진에 들어갔다. 서진산업은 포터의 적재함 철판 부분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코로나 19 사태로 생산을 중단했던 국내 공장들 모두 정상 가동하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19와 관련해 추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국내 모든 공장이 정상적으로 조업에 돌입하지만 언제 어디서 환자가 발생할지 몰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공장과 양재본사 출입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모든 근로자 등 출입자 대상자에 대한 체온을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제철, 단조사업 분할... 수익성 확대 드라이브

전문 자회사 현대아이에프씨 신설

현대제철이 거둬들이는 국내 철강업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 분야 사업을 강화하는 등 수익성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우선 현대제철은 단조(금속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를 신설한다. 해당 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 경영을 선언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금속 주조 및 자유단조 제품의 생산과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이를 맡을 전문회사인 현대아이에프씨 주식회사(가칭)를 신설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지난해 단조 사업 부문의 매출은 2293억원이었다. 신설 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고 자산은 5218억원, 부채는 2478억원이다.

분할기일은 4월 1일 오전 0시다.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출범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단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분할 후 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업부문별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적 대응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제철이 단조사업을 분할한 것은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313억원으로 전년보다 67.7% 감소했다. 매출은 20조 5126억원으로 1.3%, 순이익은 256억원으로 93.7% 줄었다.

앞서 현대제철은 1월 29일 진행된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 바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자를 기록하며 올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해 말 만 53세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해 현재 100여 명이 퇴사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이제 통신도 KB네”



새로운 통신서비스 리브모바일로 시작하세요

LTE는 물론 5G까지 세상에 없던 슬림한 요금제로
KB국민은행이 통신서비스를 바꿉니다



새로운 모바일의 시작



지금 검색창에 **리브모바일** 검색!

LTE 무제한 요금제 반값 할인 이벤트 • 행사기간 2019.12.16(월)~ 2020.2.29(토) • 방법 행사기간 중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 시 자동 적용
• 대상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고객 • 혜택 무제한(11GB+) 요금제 개통월 포함 12개월 반값 할인(월 44,000원 → 월 22,000원)

*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본 이벤트는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Liiv M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직원 또는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106호(2020.01.30), 광고물 유효기한 2020.02.29까지

KB 국민은행

삼성전자 16GB LPDDR5 모바일 D램 세계최초 양산

눈 깜짝할 새... 영화 9편 1초면 '끝'
(44GB)

8GB LPDDR4X보다 성능 30% ↑
역대 최고 속도·최대 용량 경신
스마트폰게임 콘솔 수준 퍼포먼스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이 또 다시 역대 최고 속도·최대 용량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도 게이밍 PC 이상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성능 '16기가바이트(GB) LPDDR5(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 5)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지난해 7월 12GB LPDDR5 모바일 D램에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업계를 주도한 성과다.

16GB LPDDR5 모바일 D램은 역대 최고 속도와 최대 용량을 구현하는 초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으로, 기존 8GB LPDDR4X보다 성능은 약 30% 향상됐고 소비전력은 20% 이상 줄었다. 16GB 모바일 D램 패키지는 2세대 10나노급(1y) 12Gb 칩 8개와 8Gb 칩 4개를



16GB LPDDR5 모바일 D램.

/삼성전자

탑재해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스마트폰용 모바일 D램(LPDDR4X, 4266Mb/s)보다 약 1.3배 빠른 5550Mb/s의 속도를 구현해 풀HD급 영화(5GB) 9편 용량인 44GB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서바이벌 슈팅게임을 할 때 멀리 있는 대상을 더 빠르게 보고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콘솔 게임 수준의 성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소비자가 8K급 UHD 초고해상도의 미러링 가상현실(VR) 게임을 할 때도 선명한 화질로 캐릭터를 움직

일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영상을 즐기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16GB LPDDR5 패키지 양산을 통해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선점뿐 아니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8GB, 12GB, 16GB LPDDR5 모바일 D램 풀라인업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 유일하게 8GB, 12GB, 16GB LPDDR5 모바일 D램 풀라인업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가 오는 26일 실속형 대화면 스마트폰 LG Q51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이 LG Q51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 전자

LG전자, 30만원대 실속형 스마트폰 출시

6.5인치 대화면, 1300만 화소

LG Q 51 美 국방부 표준규격 통과
7.1채널 'DTS:X' 입체음향 기능 탑재

LG전자가 출고가 31만9000원의 실속형 스마트폰 'LG Q51'을 26일 출시하며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속과 고객들을 사로잡는다.

LG Q51은 6.5인치 크기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전면 카메라 영역을 물방울 모양으로 디자인해 물입감을 높였다.

LG전자는 실속형임에도 전면에 13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 후면에는 각각 1300만, 500만, 200만 화소의 표준, 초광각, 심도 카메라를 탑재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다양한 화각을 촬영할 수 있어 인물과 배경에 맞는 사진들을 다양하게 찍을 수 있다.

LG Q51은 주로 프리미엄 제품군에만 적용되던 최대 7.1채널 'DTS:X' 입

체음향 기능을 탑재했다. 또 스테레오 스피커를 적용, 이어폰 없이도 풍부한 음향을 즐길 수 있다.

신제품은 미국 국방부 군사표준규격인 '밀리터리 스펙'도 통과해 내구성도 강화됐다. 이 표준은 군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충분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의미로 저온(포장·비포장상태), 습도, 고온(포장·비포장상태), 진도, 분진, 충격(열충격) 등을 테스트한다.

또한 LG Q51은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LG 페이를 탑재, 오프라인에서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간단한 지문인식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색상은 백색이지만 푸른빛이 도는 '프로즌 화이트', 검은색이지만 회색빛을 가미한 '문라이트 티탄' 등 2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U+, 5G 원격제어 기업 쿠오핀과 투자협약

“무인운전·드론 등 5G B2B 서비스 선점”

선제적 투자로 원격제어 분야 확대
쿠오핀 2023년 매출 300억 ↑ 기대

LG유플러스는 쿠오핀과 5G 원격제어 핵심 기술인 '초저지연 영상 전송 솔루션' 상용화를 위한 지분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분 투자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어니스트벤처스, 동유기술투자 등 3개 투자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투자사들이 확보한 쿠오핀의 지분율은 28%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G 기반의 초저지연 영상 전송 기술을 활용해 ▲부산항 크레인 원격제어 ▲두산인프라코어와 원격 굴착기 제어 ▲LG전자 물류로봇 작업환경 감지 ▲한양대와 5G 자율주행차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제 등 10여건의 원격조종 실증을 진행했다.

쿠오핀이 보유한 초저지연 영상 전



LG유플러스 이상연 상무(왼쪽부터), LG유플러스 조원석 전무, 쿠오핀 이상훈 대표,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김재완 대표, 어니스트벤처스 오규희 이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송 기술은 원격지에서 전송한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5G 원격제어 서비스에 필수적인 솔루션이다.

올해는 5G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선제적 투자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쿠오핀의 기술을 활용해 5G 기반의 원격제어가 필요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장비 무인 운전, 드론, 자동차, 로봇 제어 등 5G B2B 서비스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쿠오핀은 5G 초저지연 영상 전송 상용화 개발과 양산을 통해 오는 2023년에는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솔그룹, 전 계열사에 RPA 도입... 단순업무 최대 97% 감소

(로봇자동화)

스마트 근무환경 구축 본격화

한솔그룹이 전 계열사에 업무처리 로봇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한다. 앞서 일부 계열사에서 시범적으로 RPA를 도입한 결과 단순업무 처리시간이 52~97%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

RPA는 단순 반복업무 등을 로봇에게 학습시켜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스마트 기술이다.

한솔그룹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한 근무환경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그룹은 전사적으로 RPA를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해에 계열사인 한솔제지와 한솔테크닉스에 RPA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한솔제지의 경우 자금, 구매, 회계 등 46가지 업무에 우선 적용해 운영한 결과 기존에 소요되던 업무시간 대비

평균 52%의 시간 단축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연간 192시간이 걸리던 온라인시장 가격 모니터링 업무에 RPA를 적용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100% 자동화했다.

특히 한솔테크닉스의 경우 단순 주문처리 업무에 도입해 연간 924시간이 걸리던 업무시간이 24시간으로 줄어 약 97%의 절감 효과를 봤다.

/김승호 기자 bada@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헝가리 외교통상부에서 미차르레벤테 외교통상부 차관(오른쪽 두번째) 등과 양극박 생산공장 건설과 관련한 투자 미팅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롯데알미늄, 헝가리 공장구축에 1100억 투자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공장 내년 완공

롯데알미늄이 헝가리에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공장 투자에 나선다.

롯데알미늄은 헝가리 터타버너 산업단지에 11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기차에 사용하는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 공장을 2021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롯데알미늄은 국내 최대의 종합 포장 소재기업으로 알루미늄박 및 약·식품 포장재, CAN·PET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그룹의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2차전지용 양극박 등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양극박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2차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집 전체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박이다. 양극박은 알루미늄 호일 형태

로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전자를 모아서 방전시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롯데알미늄 측은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헝가리 터타버너 산업단지 내 6만㎡ 부지에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이사는 "전기자동차산업의 요충지인 헝가리에 새로운 공장을 세워 유럽의 급성장하는 친환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품질, 고효율의 안정적인 양극박을 생산해 배터리사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개미’의 역발상... 코로나 대란속 ‘빚내서 사자’ 10.5조

코로나19 공포로 변동성 확대 코스피 2070선까지 무너져 개인투자자 ‘사자세’ 주식 배팅 인버스 ETF 신중한 접근 필요 위험성 인지하고 단타로 이용



코스피가 83.8포인트(3.87%) 하락한 2,079.04로 장을 마감한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전염병 이슈로 인한 충격여파가 가시면 다시 증시가 상승기류를 탈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까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총10조5435억원으로 집계됐다. 10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이 기간 평균 증가율은 0.59%에 달했다. 지난달 23일까지 9조원대에 머물렀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코로나이슈가 본격화되자 꾸준히 불어나 줄곧 10조원대를 유지해 왔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상황에서도 잔고는 상승했

다. 신용거래용자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것을 말한다. 잔고가 많다는 것은 빚을 낼 정도로 주가 상승을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잔고가 위축되면 그만큼 증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얘기도. 투자자들이 빚을

내 산 주식이 주가 하락 여파로 반대매매 물량으로 출회되면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빠르게 감소한다. 개인투자자는 줄곧 ‘사자세’로 일관 중이다. 지난 24일 코로나 공포 속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6077억원어치를 순매수한데 이어 25일에도 7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691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역추세 전략으로 대응하는 개인의 성향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하방 지지선으로 생각됐던 2100선이 단숨에 무너지며 저평가 매력에 부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피 하락에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의 이틀간 온도차는 극심했다. 인버스 ETF는 코스피지수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200개로 구성된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한다. 코스피200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률은 오르는 투자전략이다. 반대로 레버리지 ETF의 경우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률을 두 배 수준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지수가 하락했을 때 손실 폭도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코로나 공포로 지수가 2070선까지 4% 가까이 급락했던 24일 종가 기준 K BSTAR 200선물인버스2X(7.64%), TIGER 200선물인버스2X(7.7%), KOD

EX 200선물인버스2X(7.35%) 등이 7%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이들 종목은 진정세가 되찾은 25일 모두 2%대 하락을 겪었다.

당장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버스에 투자한다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확산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염병 이슈로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인 만큼 진정세에 따라 언제든 지수 추세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인버스 ETF에서 난 적자는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 지수는 장기적으로 결국 우상향을 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 모두 유용한 투자 상품이지만 투자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 투자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금감원, 대손충당·내부회계 등 중점 점검

사업보고서 점검예고

감독당국이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외부감사제도와 재무정보에 관한 공시가 적절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

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개사다.

재무사항은 14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 보수와 감사의견 기재 ▲사업보고서 상 감사시간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 등 9개 항목을 살펴본다.

재무공시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주식’에 신(新)K-IFRS기준서(제1116호리스)의 변동영향·변동내용 등을 확인하며, 그 밖에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내부

감시기구와의 협의사항 공시 등도 점검한다.

비재무공시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최대주주의 개요 ▲임원의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 사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 검증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자산운용, 中헬스케어 투자펀드 출시

“中 급속 고령화에 시장 잠재력 충분”

한화자산운용은 다음 달 중국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 ‘한화차이나셀렉트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중국, 홍콩, 미국 등에 상장된 중국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중국에 고령 인구가 늘고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가우정지(高正姬)차이나에쿼티팀장은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가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기회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비 지출은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높다”며 “중국의 의료시장도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차이나헬스케어 시장 및 펀드 소개’ 기자회견에서 가우정지(高正姬) 한화자산운용 차이나에쿼티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소득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18년 기준 중국의 의료보험 지출은 1조7800억위안으로 최근 15년간 연 15~20%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또 약품 심사, 병원 체계, 의료보험 체계 등 중국 제약산업의 구조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임직원·입주민·건설근로자 안전 철저 관리”

LH, 코로나19 비상점검회의 대응상황·향후 계획 등 확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4일 LH 진주 본사에서 서울지역본부 등 12개 본부, 361개 공사현장 및 입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CEO(최고경영자) 주재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위기경보 격상 등 비상 국면을 맞이하면서 LH 임직원과 임대주택 입주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손소독제 사용 등의 기본적인 조치와 더불어 본사와 현장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임직원과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행동요령 및 대응수칙을 전파하고, 일상접촉 우려 직원에 대한 밀착관리를 시행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코로나19 관련, CEO주재 비상점검회의’에서 변창흠 LH 사장(테이블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히, 전국적 이동이 잦고 상담·조사 등 대면업무가 많은 공사 업무특성에 따라 위험지역 출장·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객 내방업무는 가급적 전화 상담을 유도하고 있으며, 세미나·회식 등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를 당분간 자제하는 등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LH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임직원 유증상자 발생유무, 임대단지의 입주민 지원 상황, 건설현장 근로자의 특이사항 발생 여부 및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무실 폐쇄 및 방역처리, 필수요원 비상근무 시행 등의 방안과 판매·보상·공사관리·임대운영 등 대민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체계를 확인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임직원, 입주민,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상황을 통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첨단IT 투자 10% 수익... 설정 1000억 ‘홀쩍’

미래에셋 코어테크펀드 인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식형펀드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가 설정액 1000억원을 넘었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는 국내 IT 관련 기업 중 핵심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종목에 투자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나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산업 내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투자대상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IT기업을 비롯해 해당 기업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거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편입 종목은 제품 경쟁력, 시장 점유

율,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모두 포함되며 주로 반도체, 2차전지, 5G 통신장비 등 IT 관련 종목으로 구성한다.

단기적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리밸런싱을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기준 삼성전자 21.58%, SK하이닉스 6.30%, 테스나 2.74%, 삼성SDI 2.72%, 이오테크닉스 2.63% 등을 편입했다.

지난해 10월 설정이후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는 누적수익률 9.34%를 기록했으며 연초 이후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ETF 제외) 중 가장 많은 720억원이 유입됐다. /송태화 기자

반포3주구 재건축 '6개건설사' 참여

수주전 화두는 '공정경쟁'

서울시, 불공정경쟁시 집중 점검 전문가 파견... 제안서 위반 검토 코로나19 우려 비대면 홍보 요청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전'에 돌입했다. 반포 주공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국내 대형건설사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에 돌입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이미 1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이상 보증금 납부순) 등 6개 시공사가 참석했다. 조합은 앞선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소송과 관련 해선 향후 일정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포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 정비사업은 서초구 1109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를 짓는 것으로, 입찰보증금은 총 800억원이다. 200억원은 현금, 나머지 600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면 된다. 입찰마감은 오는 4월 10일이며, 시공사 합동홍보 설명회는 5월 1일, 최종선정은 5월 16일이다. 조합 측은 이날 현장설명회를 찾은 각 건설사 관계자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위주의 홍보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서울시도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포3주구를 선제적 공공지원 1호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될 때에는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시 모니터링에서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될 경우 시·구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지원반을 바로 투입,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해 건설사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조합과 서초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와 단속반 활동을 지원한다.

앞서 반포3주구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지만 공사비 등에서 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500억원에 달하는 입

찰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포3주구는 지난 2018년 5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선정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입찰제안서와 최종 수의계약서 일부 내용이 다르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시공사 지위를 박탈시켰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권 해지 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용과 입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반포3주구 조합 역시 '시공사 계약해지 총회에는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거 판결을 사례를 활용해 HDC현대산업개발을 반박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소송제기는 시공사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 측에서도 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현대중, 초대형 LPG선 수주 KSS해운 총 910억 건조계약

내년 8월 선주사에 인도 예정
올 40척이상 LPG선 발주 예상

현대중공업그룹이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선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KSS해운과 8만4000입방미터(㎥)급 초대형 LPG선 1척, 총 910억원 규모의 건조계약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부터 KSS해운에서 같은 규모의 LPG선 5척을 수주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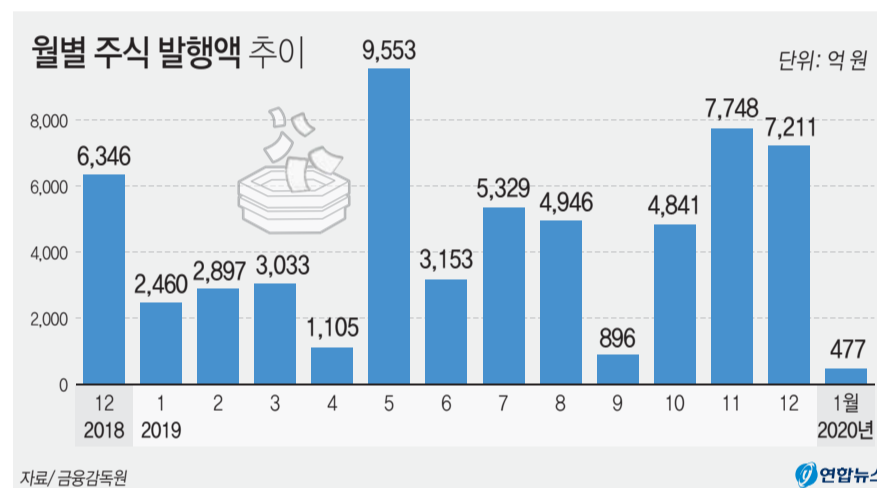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30m, 너비 32.25m, 높이 23.75m로, 올해 9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해 2021년 8월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조선해운 전문 기관인 클락스 리서

치에 따르면 전 세계 LPG 해상 수송량은 2019년 1억3000t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1억1700만t으로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40척 이상의 LPG선이 발주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LPG선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에만 LPG 추진선 7척을 포함해 초대형 LPG선 12척, 중형 LPG선 7척 등 총 19척의 LPG선(전 세계 LPG선 발주량 총 31척)을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세계적인 선급인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LPG 연료공급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LPG 추진 선박 관련 기술에서도 앞서 있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ysw@



1월 일반회사채 늘고 주식은 급감

금감원 지난달 주식발행규모 477억
기업공개 210억... 전월비 91.3% ↓

지난달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중 주식 발행규모는 477억원으로 전월 7211억원 대비 93.4%나 급감했다.

기업공개(IPO)가 21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91.3% 줄었다. 코스닥에서 만스팩 두곳이 상장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 유상증자 규모는 전월 대비 94.4% 감소한 267억원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한 곳씩 자금조달에 나섰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11조1579억원으로 전월 대비 27.7% 증가했다.

특히 일반회사채의 발행이 급증했다. 3조211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운영 및 채무상환 목적의 중·장기채가 주로 발행됐다.

금융지주채가 2500억원, 은행채가 6300억원 규모로 발행돼 전월 대비 각각 55.4%, 28.0% 줄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4379억원 규모로 발행돼 전월 대비 68.8% 감소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525조313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3735억원(0.3%)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는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순발행으로 전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형쇼핑몰 후광효과에 아파트 공급 러시

복합쇼핑몰 들어서면 인구·집값 ↑
스타필드 인근 하남유니온 2배 올라

이케아,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고덕과 인천 송도, 충남 계룡, 경남 창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유동인구를 크게 늘린다. 교통, 배후수요, 미래가치 등 입지 여건을 따져 검증된 곳에만 대형 사업지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쇼핑몰 인근 집값이 오르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형 쇼핑몰 인근에 위치한 단지의 '후광효과'를 살펴보면 스타필드가 입점한 하남의 경우 스타필드 하남 인근에 위치한 '하남유니온'에 위치한 '하남유니온'은 12층은 분양가 대비 2배 된 지난 1월 8억원에 거래됐다.

권강수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25일 "대형 복합몰이 들어서는 부지는 중심상업지구로 주택 수요까지 견인해 집값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쇼핑몰 종사자, 협력업체 등으로 인한 수요도 기대할 수 있어 가격 상승은 물론 환금성도 좋다"고 말했다.



이런 단지들로 충남 계룡에서는 대우건설이 오는 3월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 59㎡~84㎡, 88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바로 옆에는 충청권 최초로 이케아가 들어서는 부지가 예정돼 있다. 대실지구 중심상업지구(예정)가도 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계룡시청, 계룡 문화예술의전당, 흙플러스 등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KTX 계룡역이 가깝고, 계룡대로와 계백로가 단지과 인접해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현대건설이 오는 3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를 분양한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 B2블록에서 아파트 84㎡~175㎡ 1205

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59㎡ 320실 등 15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근에는 스타필드가 입점 예정이고 코스트코 송도점, 롯데마트 송도점, 흙플러스 송도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롯데몰 송도(예정), 스타필드 송도(예정) 등이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이케아가 입점 예정이다. 올 상반기 가장 관심 끄는 물량으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4월 '둔촌주공 재건축' (가칭) 1만 2032가구 중 84㎡ 이하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금리인하 여파... 대부업 대출 7000억 ↓

대형사, 신규대출 중단 사업철수 수순

법정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계가 역대급 위기에 빠진 가운데 대부시장 규모가 빠르게 줄어 들고 있다. 한국 대부업계를 주도해온 대형사들이 신규 대출을 연이어 중단하거나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2018년 2월)되면서 대부업계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대

부업체들은 물론 대출잔액과 대부업이 용자도 줄었다.

실제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업체수는 2016년 말 8654개에서 2018년 말 8310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8294개로 집계됐다. 대출규모도 2018년 상반기 이후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8년 상반기 17조4000억원이던 대출액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16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김유진 기자 ujn6326@

THINKWARE

아이나비

아이나비 CONNECTED

스마트폰으로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아이나비 QUANTUM 2

국내유일 전후방 QHD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Connected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술) Connected 기술을 탑재하여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차 충격 알림**
외부 충격 당시 촬영된 스틸 컷 전송
- 차량 위치 확인**
스마트폰 App으로 차량 위치 확인
- 원격 전원 제어**
스마트폰 App으로 블랙박스 전원 Off
- 차량 정보 표출**
배터리 잔량, 연비 등 차량 정보 확인

아이나비 CONNECTED

전·후방 320° QHD

F1.6 후방렌즈 | Vision BSD | Extreme ADAS | 울트라 나이트 비전 | 전방위 주차녹화 | 주차 저전력 강화 | Format Free 2.0 | Drive X

스포티파이 국내진출설 솔솔... 음원계 넷플릭스 될까

〈음원플랫폼 업체〉

세계 79개국, 스트리밍 점유율 1위 소니뮤직, 유니버설 등과 제휴 장점 오리지널콘텐츠 없어 차별점 적어

세계 최대 음원플랫폼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의 국내 진출설이 들려오며, 국내 음원 시장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가 진입하더라도 국내 음원 시장 특성 상 해외 음원 플랫폼이 정착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스포티파이는 200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출발한 음악 스타트업으로 2008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전 세계 79개국에 진출, 음악 스트리밍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발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응해 2011년 미국시장 진출과 페이스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2년 웹 기반 플레이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넷플릭스와 함께 대표적인 구독경제 모델로 꼽히기도 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포티파이

〈한국 음원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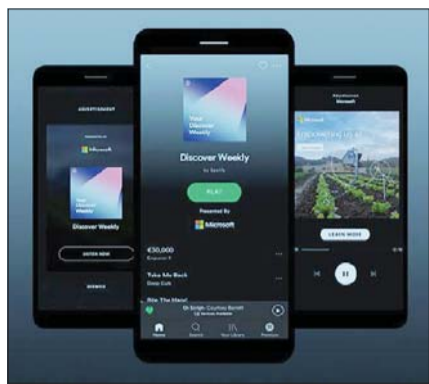
음원플랫폼	점유율
멜론	44.9%
지니뮤직	22.3%
플로	17.3%
네이버뮤직	9%
벅스뮤직	4.7%
네이버바이브	1.8%

*2019년 1월 기준 /코리안클릭

는 지난해 2·4분기 월간 사용자 수와 유료 가입자 수는 각각 2억3200만명, 1억 80만명을 기록했다. 강점은 소니뮤직, 유니버설 등과 제휴해 제공하는 폭넓은 라이브러리와 고품질 스트리밍 서비스,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레이리스트를 꼽을 수 있다.

스포티파이의 플레이리스트는 빅데이터 분석이 반영된 선곡과 관련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이 추천하는 선곡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같은 강점에도 스포티파이의 국내 진출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분석이다. 우선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서비스 화면.

는 하지만, 음악 시장 특성상 넷플릭스와 같이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없어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점이 크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음악 시장은 거의 모든 서비스 업체들이 비슷한 음원을 제공하고 있어 독점 계약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다. 넷플릭스와 같이 오리지널 콘텐츠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해외 음원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즐기는 음악이 대부분 국내 가요이기 때문에 큰 파급

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국내 이용자가 즐겨듣는 국가별 음악은 국내가요가 94.6%, 즐겨듣는 음악 장르는 발라드가 78.5%로 가장 높았다.

통신·포털 업계로 재편된 국내 음원 시장 구조도 부담이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음원 시장은 카카오키의 멜론이 전체 시장의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지니뮤직은 22.3%, SK텔레콤의 '플로' 17.3%, 네이버뮤직 9%, 벅스뮤직 4.7% 순이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구독경제 형태의 음원 서비스가 가장 빠르게 정착된 국가 중 하나다. 2005년 멜론이 국내 처음으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며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당시에도 애플이 음원 건 당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구독경제 시장이 국내에 빨리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동통신사 마케팅도 현재 국내 음원 시장 구조가 형성된 원인으로 꼽힌다.

멜론은 포털 사업자 카카오가 운영하고, 지니뮤직은 KT와 LG유플러스를 각각 1·2대 주주로 둔 음원 업체다. 플로 또한 SK텔레콤이 2018년 출시한 음원 서비스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국내 음원 서비스는 결합서비스(번들링)를 통해 영향력을 키워가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힘이 세다.

지니뮤직, 플로 등은 스마트폰 요금제와 결합해 자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 전략에 나서고 있어 무한정한 다수를 공략하는 스포티파이가 끼어들 틈새가 많지 않다. 실제 세계 2위 음원 스트리밍 업체 애플뮤직은 국내 점유율 1% 미만(업계 추정)으로, 뚜렷한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의 국내 시장에서 저가 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내 음악 플랫폼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는 한국저작권협회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 저가 공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국내 IoT 매출 10조 넘어... 필요인력 지속 증가 금호타이어 '북미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산업 조사 내수액 8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지난해 국내 사물인터넷(IoT) 매출액(10조9379억원)이 2018년(9조4149억원) 대비 16.2% 증가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 현황을 담은 '2019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통계조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라 사물인터넷 사업 영역이 확인된 2313개사(2018년 2204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에서 601개사가 조사에 응답했다.

사물인터넷 전체 매출액에서 내수액은 9조7340억원, 8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액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장률 46.3%를 기록해 매년 빠른 성장 추세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혁신 신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앞으로도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4개의 사업 분야 중 서비스 분야의 사업체가 1226개사로 전체의 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특히 건설·시설물관리·안전·환경(1조928억원, 38.1%) 분야가 시설물관

리 등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분야별로는 매출액은 제품기기가 4조4796억원으로 41.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네트워크(1조8815억원, 25.2%) 분야가 가장 높았고, 플랫폼 분야(1조7092억원, 19.8%)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인력은 7만7734명으로 2018년 대비 3793명이 증가했으며, 올해 고용계획상 필요인력은 약 4300명으로 나타나 사물인터넷 분야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품이다. 사이드월(타이어 옆면)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외양이 달라지는 홀로그램 데코레이션을 넣었고, 트레드(타이어 접지면)에는 규칙적인 기하학 패턴과 모던한 곡선 디자인을 조화시킨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엑스타 PA51'은 북미 전용 사계절 타이어로 스포츠 성능과 컴포트 성능을 함께 갖춘 신제품이다. 사이드월에는 레이싱 깃발 형태를 응용하여 역동성을 느끼도록 디자인이 구현되었다.

/양성운 기자 ysw@

소 상장계열사 전자투표... 주주친화 경영 속도



소액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유도

현대백화점그룹이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손꼽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주주총회부터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HCN·에버다임 등 7개 모든 상장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소

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다.

현대백화점은 25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공시를 통해 전자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현대백화점 주주들은 다음달 15일부터 주총 하루 전인 24일까지 10일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HCN·에버다임 등 각 상장 사별 주주들도 주총 11일 전부터 10일간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민지 기자 kmj@

컴투스 '히어로즈워' 태극서 인기 이어간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역할수행 게임(RPG) '히어로즈워: 카운터어택(히어로즈워)'의 태극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히어로즈워는 컴투스가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신작 타이틀이다. 기존 턴제 RPG와 달리 캐릭터별 이동 범위, 스킬 사거리, 발동 조건 등 액션 요소와 강화된 전투 시스템이 특징이다.

히어로즈워는 마지막 생존 인류와 돌연변이 인류 간의 대립이라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토리 모드, 투기장 시스템, 용병단 미션 등의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김나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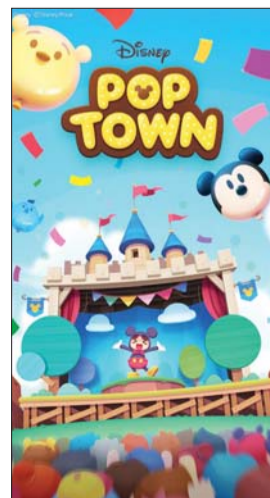
디즈니덕후 취향 저격 모바일게임 출시

선데이토즈 '디즈니 팝 타운'

선데이토즈는 모바일 퍼즐 게임 '디즈니 팝 타운'을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즈니 팝 타운은 디즈니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코스튬과 퍼즐 스테이지가 특징으로, 퍼즐을 풀면서 캐릭터들의 이야기와 미션을 전개하는 장르 결합형 모바일 퍼즐 게임이다. 디즈니 팝 타운은 디즈니 인기 IP에 기반한 6개 챕터, 900개 퍼즐 스테이지 등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6개의 챕터에서 등장하는 '미키 마우스', '곰돌이 푸', '겨울왕국', 알라



설명이다.

단, '보이스 토리4' 등 디즈니의 인기 IP를 활용해 등장하는 163종의 코스튬은 퍼즐 플레이에 대한 수집, 육성의 재미를 더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김나인 기자

코로나 사태, 앞으로가 '더 걱정'

중경제 위축 → 수출 부진 부품차질 '중기에 치명타'

韓 중소기업 對中 수출비중 22.9%
중국발 부품공급 차질로 직접 영향
대기업 생산 감소 '2차 파급효과'

'코로나19 확산→중국 성장 위축→
한국 성장 둔화→중소기업 수출 부진
→중소기업 조업 위축→중소기업 경기
둔화 및 고용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한국 중소기업들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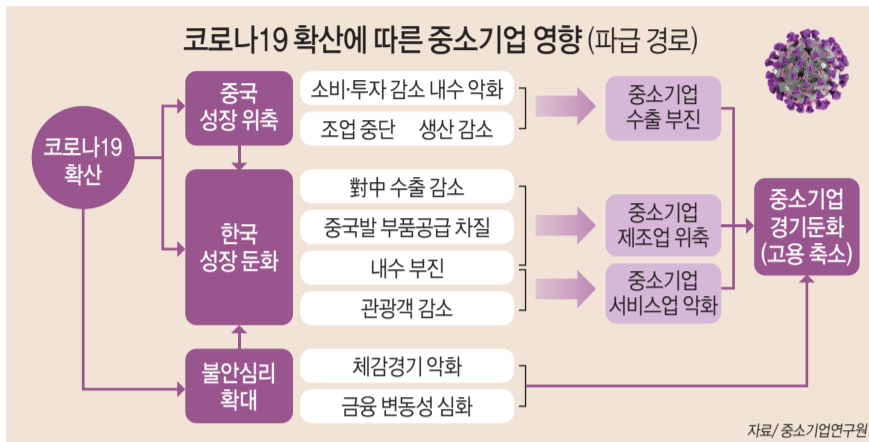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22.9%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성장 위축이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점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서비스업은 중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인 관광객 위축, 내국인 수요 감소 등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 우려다.

이에 따라 전염병 확산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을 완화하되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시적·거시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펴낸 'KOSBI 중소기업동향'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이슈 리포트에서 코로나19가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세계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중이 2002년 당시 4.3%에서 2019년 현재 16.3%까지 늘고, 세계무역에서의 중국 비중 역시 4.7%(2002년)에서 11.8%(2018년)로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악화될 경우 과거보다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도 2002년 당시 14.6%에서 지난해엔 25.1%까지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 비중 역시 같은 기간(2019년은 1~11월 기준) 10.1%에서 34.4%로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중국이 국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커진 현실에서 불거진 코로나19 사태가 더 많은 충격과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 관측이다.

중기연구원 정유탁 책임연구원은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반제품, 부품·부품, 자본재 등의 비중이 높아 중국내 생산활동 위축과 수출 부진이 심화될 경우 한국 중소기

업 수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었던 중소기업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역시 그동안 꾸준히 확대돼 온 터라 이번 영향으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원재료나 부품 등을 공급하던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 역시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

한국의 대중국 소재·부품 수입 비중은 2001년 당시 9.3%로 3위였지만 중국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지난해의 경우 30.5%까지 올라가며 전세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탁 책임연구원은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하청·협력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의 악영향에 따른 중국발 부품공급 차질로 직접 영향을 받는 동시에 대기업 생산 감소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퇴

"소상공인 운동 새로운 길 위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사퇴했다. 다음 행보는 총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이 소상공인 운동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비롯한 일선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사퇴를 전하는 신상발언에서 "소상공인을 외면해 온 정책환경을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정책환경으로 바꾸고, 더 이상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는 절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의 변화와 소상공인 운동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소상공인기본법을 전면화시키고, 수년간 노력한 사람으



로서 이제 소상공인운동의 새로운길을 열기위해한발자국을 내딛으려한다"고 덧붙였다.

최회장은한

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등을 거쳐 전국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를 역임한 후 2014년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연합회를 이끌어왔다.

최 회장은 조만간 향후 거취와 관련된 개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의 사퇴로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임용 수석부회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도구공간, 기업 3곳서 시드투자 유치

자율주행 순찰 로봇 '디-봇 라이트' 내달부터 코엑스에서 야간 자율 순찰



도구공간의 자율주행 로봇이 야외주행을 실시하고 있다. /도구공간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도구공간이 퓨처플레이,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비공개다.

도구공간은 실내외 모두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디자인에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서비스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해 융합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도구공간은 자체 개발한 야외용 정밀위치인식 기술과 환경 인지 기술, 특수 목적용 로봇 플랫폼 납품을 통해 유진로봇, SK텔레콤, 현대모비스, LG전자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19년에는 CJ오벤트스 프로그램을 통해 CJ대한통운 내 자율주행 물류 로봇 시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도구공간은 최근 월드트레이드센터(WTC)와 계약을 맺고, 3년간 연구개발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 '디-봇 라이트(D-Bot LIGHT)'를 오는 3월부터

코엑스 내 야간 자율 순찰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호 도구공간 대표는 "지금까지 40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기업들에 기술을 제공해왔다"며 "이번 투자유치는 도구공간이 보유한 기술들을 통합해 더욱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구공간은 향후 순찰, 물류 로봇 외에도 야외 배송 로봇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인간-로봇 간 상호 작용, 다수의 로봇 간 협업 등 로봇 분야 최신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중소단체, 상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기술 빼앗겨도 소송 엄두도, 기업활동 전념하게 개정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일감을 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더욱 제재를 강화하는 상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 공정을 위한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9일 관련 세미나를 갖고 상생법 개정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25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들이 함께 했다.

중기중앙회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긴급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하면서 "거래 관계에서 '을'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냉기습만 앓고 있고,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 때문에 소송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면서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상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부회장은 "(대·중소기업)상생은 원칙이 꼭바로 서야 가능하다.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생도 어렵다. 기술탈취 역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상생협력법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우선 통과시켜놓고 보완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우려한 만큼의 걱정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요기요, 레스토랑 운영정보 '한눈에'

'요기요 사장님포털' 오픈

달리배리히어로코리아는 국내 대표 배달앱 요기요가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기요 사장님포털'을 오픈하고 레스토랑 파트너들과의 상생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요기요가 새롭게 선보이는 요기요 사장님포털은 평소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레스토랑 운영 알짜 정보는 물론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모두 한 곳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종합 포털사이트다.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며, 요기요에 입점하지 않은 사장님들도 누구나 방문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기요 사장님포털은 1년 365일 바



요기요가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기요 사장님포털'을 오픈했다. /달리배리히어로 코리아

쁜 레스토랑 파트너들을 위해 쉽고 간편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매장에 효율적인 운영과 매출 증대를 위한 각종 노하우와 함께 창업과 요기요 서비스가 궁금한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유은혜의 마이웨이... 반대에도 “수능 30~40% 뽑아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참여 조건 수능 전형 30~40% 이상 선발... 70개 내외 대학 선정
서울 16개대는 40% 이상, 수도권은 30%, 지방대는 학생부교과

교육부가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선발비율을 30~40%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을 줄이는 대신 수능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따른 것으로, 대학들은 최근 이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대학들의 입시자율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5일 확정해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공교육과정을 거친 학생이 대입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도입됐다. 예산은 2016년 459억원에서 2018년 559억원, 2020년 697억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선정

대학은 70개교 내외다.

올해 사업기간은 2020년~2021년(1+1년)으로 선정 대학들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활동, 대입전형 단순화, 정보공개 강화, 사회적 배려자전형 및 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앞서 2018년 8월과 2019년 11월 각각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전면 개편됐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단순화와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 대입계획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전형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참여 조건으로 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 비율을 40%까지 높여야 한다.

사업 유형은 유형 I 과 유형 II로 개편된다. 유형 I 은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해 64교를 선정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다. 유형 II는 최근 4년(2016~2019)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6교를 신규 선정한다.

아울러 유형 I 선정대학 중 7개교 내외를 선정해 대학 입시에서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인사 참관, 평가 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해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입시비리가 적발돼 중

징계되는 경우 사업비 삭감이나 감점했으나 경징계시 재량에 따라 수혜제한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경징계를 받을 경우도 사업비 삭감과 감점토록 했다. 또 입시비리 연루자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비 20~30% 삭감, 선정평가 6~8% 감점으로 강화되고, 입시 부정행위 등은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5% 이내 삭감과 선정평가 1% 이내 감점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 신청서 예비접수는 3월 중, 사업신청은 4월, 평가위원회의 1차서면평가와 2차면접평가는 4~5월 진행되고 최종 사업 선정대학은 5월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후 이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3월 올 수능 첫 모의고사 코로나19 여파 1주일 연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고등학교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3월 열리는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도 한 주 연기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2일 예정이던 첫 모의고사는 1주일 미뤄진 3월19일 시행된다. 모의고사는 수능 전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시험에 적응토록하는 시험으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 총 6회 치러진다. 첫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성과 4년 연속 최고등급

숙명여자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이로써 수도권에서 2016~19년 4년 연속으로 우수대학에 선정된 유일한 여대가 됐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저학년부터 전공별 직업경로에 기초한 진로지도 강화하고, 대학을 통한 종합적인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숙명여대는 지난 2015년 말 시범대학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우수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사업 1년 연장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숙명여대는 학기 중에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모의시험 등 취업스킬 프로그램은 물론, 현장실습과 전공별 특성화 프로그램, 숙명 DREAM Festival(취업박람회) 등을 꾸준히 시행하며 재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특허지원사업 잇단 선정 ‘쾌거’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사회 기여”

삼육대학교가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특허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산학연(産學硏) 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25일 삼육대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최근 ‘제품단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시장 요구에 맞게 제품별로 묶어 기업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공공연의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삼육대는 제품단위 특허기술 이전 전략과 해당 제품



삼육대학교 전경

관련 기술의 마케팅 제반 비용으로 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학이 강점을 가진 나노바이오 융복합 소재 분야

를 특색화해 국내외 수요기업과 매칭,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육대는 ‘정부 R&D 특허설계 지

원사업’에도 선정됐다. 대학과 공공연이 수행하는 R&D 과제의 연구 성과물이 우수특허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적의 특허 권리범위 설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000만원 규모로, 화학생명과학과 박명환 교수의 연구과제에 대한 특허 컨설팅을 받게 됐다. 나노버블과 에스터 결합을 활용하여 초음파유도 약물전달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삼육대 한경식 산학협력단장은 “이 외에도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사업’(3년차), ‘청년 TLO 육성사업’(3년차),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2년차) 등 기존에 수행해오던 정부 지원 산학연 협력사업도 올해 계속 수행하게 됐다”면서 “삼육대가 보유한 우수특허를 활용해, 산업계와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학교 세종컬리너리스쿨은 지난 14일 '와인과 소믈리에' 10주 차 수업과 정규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세종대학교

세종대 세종컬리너리스쿨 ‘와인과 소믈리에’ 과정 수료

세종대학교 세종컬리너리스쿨(SCIA)은 지난 14일 '와인과 소믈리에' 10주 차 수업과 정규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수업은 와인 잔의 종류와 와인 종류에 따른 보관법 등을 배우는 시간으로, 엄경자 교수는 와인 예절과 성공적인 호스팅 테이블 방법 등을 소개하고 특히 실생활에 유용한 와인 선물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 수강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수강생들은 직접 가져온 와인을 다른 참가자들과 나눠 마시며, 자유롭게 와인의 맛을 감별하고 평가하는 교류의 시간을 보냈고, 수업 이후 수료 대상자 6명에 대한 수료식이 진행됐다. /한용수 기자

신한금융투자 등 ‘정규직 연계 인턴십’ 채용

신한금융투자, 현대캐피탈 등이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인턴십을 채용한다.

2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주)는 3월1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뽑는 2020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본사영업(I B, Wholesale 등), Digital, IT, 정보보호, Risk Management다. 공통 지원자격은 국내/해외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가 없는 자, 현업 인턴십 전형 참여 가능한 자(2020. 04.06~4.29) 등이다.

(현업캐피탈도 3월3일 17시까지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연구개발, 품질, 생산, 구매, 영업, 재경, 총무 각 직무다. 공통 지원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원) 기졸업자 및 20년 8월 졸업예정자, 신입사원 채용 시 올해 6월부터 즉시 정상근무 가능자 등이며 근무지역은 경기군포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스타트업에 기술 ‘테스트베드’

서울시교육청이 스타트업들에 첨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 est Bed)’를 제공한다.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구유직임 측정’을 통한 기계학습 읽기능력 및 학습약자 진단 및 개선기술’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미래형 토론프로그램’ 실증지원 협약을 주식회사 BNRI와 스튜디오 코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술연구

원 등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와 연계한 공공테스트베드제공 사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각 사업 부서를 실증 수요처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게 된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교육분야에 적용할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NOT BEEF, BUT VEEF!

Ria **미라클버거**
MIRACLE BURGER



고기 없이 고기 맛이 나는 기적!



New



리아미라클

세트 ₩7,400 버거 ₩5,600

동물성 원재료 성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조리 시 교차 혼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여경협, 공영쇼핑 품평회서 여성기업 15개社 선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2020년도 공영쇼핑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상품품평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품평회를 통해 호텔식 침구류 세트를 선보인 ㈜디자인엔, 전통방식의 유기그릇 제조 전문업체인 낫향 등 15개 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여경협

필립모리스 신임 대표이사에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는 백영재 전 구글 글로벌 디렉터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백 신임 대표는 3월 중순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회사는 백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담배연기 없는 미래'라는 기업 비전을 더욱 빠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과 조직 전반의 혁신을 지속할 전망이다.

백영재 신임 대표는 지난 20년간 컨설팅 업계와 대기업, 글로벌 게임 업체와 IT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한편, 2011년부터 9년 간 한국필립모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신임 대표이사

리스의 수장을 맡아 회사 성장에 기여해온 정일우 대표는 동아시아 및 호주 지역 전략 프로젝트 총괄로 새롭게 선임되어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아시아 본부가 위치한 홍콩으로 부임한다.

/김민지 기자 kmj@



이노션 자회사 캔버스, 애드위크 '떠오르는 미디어 회사' 수상 캔버스 월드와이드(이하 캔버스)는 광고 전문지 애드위크(AdWeek)가 선정하는 '2020 가장 떠오르는 미디어 회사'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캔버스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미주지역 미디어 대행 자회사다. 왼쪽부터 그레고리 존스, 크리스티 린드, 폴 울밍턴, 에이미 긴스버그 등으로 구성된 캔버스 경영진 /이노션

한세에스24문화재단 아산지역 학생들에 '의당장학금'

한세에스24문화재단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제33회 의당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보민(설화고 1학년), 최정원(충남삼성고 2학년), 임재정(설화고 3학년) 학생과 올해 대학에 들어간 신승민(경인교대 1학년) 학생이다.

의당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관내 고등학생을 학년별 1명



씩 선발해 1년간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엔 별도의 입학 축하금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6명의 음봉면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매년 6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버거킹, 가장 존경받는기업 프랜차이즈 1위

버거킹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평가에서 프랜차이즈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7년째를 맞이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가치영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인증제도다.



버거킹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끊임없는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뛰어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됐다. /김민지 기자 kmj@

'코로나19'와 면역력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코와 비동 또는 상부 인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처음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나 갈수록 기침, 인후통, 발열, 경련, 폐렴 등의 증세가 심해진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노약자나 어린이, 임부, 병중병후 환자일수록 감염될 확률이 높고, 한 번 감염되면 폐가 급속도로 망가져 치명적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미세한 침방울)이 주위 사람의 호흡기로 침입하거나 손을 통해 눈이나 코의 점막에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평소 마스크 착용과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면역력 강화와 체력보강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표 보약으로는 '공진단(拱辰丹)'과 '경옥고(瓊玉膏)'가 있다.

'황제의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공진단은 원나라 명의였던 위역림이 왕실에 바친 처방으로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 꿀로 구성되며,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해 얻는 약재로 강심작용을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공진단의 효능은 이미 많은 임상실험과 연구 논문을 통해 수차례 검증된 바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가 발표한 '마우스 복강대식세포에서 가감공진단(加減拱辰丹)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논문(2011년)에 따르면 마우스 복강대식세포에서 가감공진단 추출물이 LPS(지질다당류, lipopolysaccharides)로 유도된 염증 매개체에 미치는 저해효과를 조사한 결과 LPS로 자극된 복강대식세포에서 가감공진G GD 추출물(가감공진단)은 어떤 세포 독성 효과도 없었고, 단백질 발현이 용량 의존적으로 현저히 억제된 것이 확

인되었으며, 항염증 효과와 염증질환 치료에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육체피로, 허약체질, 권태, 갱년기 등에 효과적인 경옥고(瓊玉膏)는 인삼, 꿀, 백복령, 생지황즙으로 구성되며, 조선 시대 최고 명의인 구암 허준 선생이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약으로 제일 먼저 선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옥고가 인체 면역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진이 입증한 바 있는데, 배종섭 경북대 약학대학 교수팀은 '전통적인 한방 처방 경옥고의 면역증강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경옥고를 경구 투여한 시험동물(생쥐) 면역 관련 인자가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단, 공진단의 핵심 성분인 사향은 위낙고가인데다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은 의약품용 녹용인지, 전문 한의사가 직접 제한한 것인지 확인 후 복용해야 하고, 경옥고 역시 전문 한의사에게 처방받아 체질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임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대유위니아, 대구 의료시설 등에 세탁기 기증

위니아세탁기 15kg 100대 지원

대유위니아그룹이 코로나19에 신음하는 대구 지원에 나선다.

위니아담체는 25일 대구광역시에 위니아세탁기 100대를 기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격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위생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 주도로 의료시설과 방역단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니아세탁기 15kg은 대용량 제품으로, 통세척 기능으로 위생 상태를 보존할 수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니아담체 김혁표 대표는 "정부와 국민 전체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위니아담체는 대구시에 세탁기 100대를 기증했다.

/위니아담체

있는 만큼 국민들이 희망을 더 가지시길 바란다"며 "가장 상심이 큰 대구시민들도 각지의 응원에 힘입어 빨리 일상

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대교

10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

대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0년 연속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교는 지난 2011년 교육서비스 부문에 처음 선정된 이후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대교의 대표 AI학습서비스 '써밋 수학'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서비스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해 6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한용수 기자 hys@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정무협력비서관 권용식 △시민사회비서관 윤순희
-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세계무역기구과장 배준형 △다자통상협력과장 조수정 △통상법무기획과장 정경록
-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영국 ◇ 국장급 파견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겸 주 CAO 대표부 진현한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홍보기획팀장 김초경 △디지털소통팀장 이지영 △서울북부지청장 김상한 △군산지청장 이원주 △천안지청장 이경한 △보령지청장 권오형
- ◆통계청 ◇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영 ◇ 4급 승진 △감사담당관실 최원 △산업통계과 이복현 △산업동향과 백지선 △고용통계과 김지은 △농어업동향과 신명철 △조사기획과 서만영 △인구총조사과 임영일
- ◆대전도시공사 ◇ 처장급 △경역지원처장 이근수 △고객지원처장 정교순 ◇ 팀장급 △기획

예산팀장 박희권 △혁신성과팀장 강호철 △에너지사업기획단장 이충래 △사업관리팀장 전형태 △주거복지팀장 광상권 △환경바이오사업소장 정구환 △도안크린넷사업소장 권오식

부음

- ▲안병학(경향신문 윤전국 차장)씨 별세, 안병준씨 동생상, 안병용씨 형님상 = 24일 오후 4시 24분, 광명성애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6일 오후 1시, 070-4906-5449
- ▲김진철 씨 별세, 김범호(SPC그룹 부사장)·길호(한국HP 엔터프라이즈비즈니스그룹 전무)·은선(하은센터 원장)씨 부친상 = 24일 오후 6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장지 천안공원묘지, 02-2258-5940.
- ▲김영우씨 별세, 김경수(발리볼코리아닷컴 발행인)씨 부친상 = 24일,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층 해당화실, 발인 26일 오전, 031-218-6565.

한·중·베·러 현지입맛 사로 잡았다

46살 초코파이, 제2의 전성기

오리온, 인절미·흑임자 접목
‘찰 초코파이’ 누적판매 1천만개
러시아 베리류, 중국선 마차 등
국가별 소비자공략 제품 다양화



오리온 초코파이 라인업

/오리온

오리온이 현지화된 ‘초코파이’를 앞세워 글로벌 제2도약에 나섰다. 오리온은 출시 46주년을 맞은 초코파이가 한국·중국·베트남·러시아 각국의 현지화된 맛으로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제2의 전성기’에 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초코파이에 전통 디저트인 인절미와 흑임자 등 떡을 접목한 ‘찰 초코파이’를 선보였다. 과격 변신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매진되기도 하면서 현재 생산 즉시 전량 출고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베리 맛 초코파이를 출시해 호평 받고 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다차’(텃밭이 딸린 시골별장)에서 농사 지은 베리류를 잼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익숙하다. 이러한 문화에 착안해 지난해 하반기 ‘라즈베리’, ‘체리’ 초코파이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 1월 ‘블랙커런트’를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베리 맛 제품들이 추가되면서 러시아 초코

파이 매출은 전년 대비 23% 넘게 성장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현지인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들이 안착하며 초코파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초코파이 마차’를 2016년 출시했고, 베트남에서는 빵 속에 카카오를 듬뿍 담은 ‘초코파이 다크’를 2017년에 내놓은 바 있다. 두 제품 모두 브랜드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매출과 시장점유율 제고에 한 몫 하고 있다.

초코파이 현지화 전략의 성과는 글로벌 통합 R&D 관리의 결과라는 평가다. 오리온은 지난 2017년 연구개발(R&D) 역량 및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법인이 주축이 돼 연구기

획담을 신설하고 글로벌 통합관리를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법인별 R&D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국 소비자 특성에 맞춘 신제품들을 지속 선보이면서 초코파이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연구소를 출범하며 R&D 분부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 제품력 강화 및 성장 전략에 나선다.

오리온 관계자는 “출시 46년을 맞은 초코파이 맛에서부터 식감이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면서 초코파이 브랜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올해 글로벌 연구소가 출범한 만큼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 개발해 초코파이 제2의 글로벌 도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딸기에이슬, 포 3국 주류시장 도전장

세븐일레븐 4600개 지점에 입점

하이트진로가 ‘딸기에이슬’로 동남아시아 주류 가정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3개국의 세븐일레븐 총 4600여개 지점에 딸기에이슬을 신규 입점하며 가정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청포도에이슬 등 소주 제품들을 동남아시아 현지 대표 가정 유통 채널 대부분에 입점해 판매 중이다. 이번 세븐일레븐 딸기에이슬 입점으로 가정용 대형 유통 체인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딸기에이슬은 필리핀 약 2400개 지점, 태국 2000여개 지점, 싱가포르 약 200개 지점에 이번 달 내로 입점한다. 동남아시아 편의점 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 입점은 참이슬 판매량 증대의 의미를 넘어, 골목마다 위치한 높은 접근성 때문에 동남아시아 소비자들과 가장 밀접한 곳으로 참이슬 브랜드 홍보 효과도 매우 크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 소주세계화선포 이후, 동남아시아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 가정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했



필리핀 세븐일레븐 내 하이트진로 제품 진열 모습. /하이트진로

다. 단순 입점이 아닌 철저한 재고 관리, 전략적 프로모션 진행, SNS를 통한 홍보 등을 강화, 소주 판매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동남아시아 내 하이트진로의 소주 전체 판매량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22%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 3월 베트남 하노이에 법인을 설립하고 3년만인 지난해에는 필리핀 법인을 설립하는 등 법인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식품·뷰티 전문 모바일생방송 확대

롯데홈쇼핑, 랜선뷰티 등 론칭

롯데홈쇼핑은 ‘쿨방’, ‘랜선뷰티’, ‘같이살래?’ 등 식품, 뷰티 전문 모바일 생방송 프로그램을 연이어 론칭하며 미디어커머스형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각 분야 화제가 되고 있는 상품이나 자신이 추천하는 상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며 직접 시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쇼핑을 결합한 형식으로 2030세대 고객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시범 기간 동안 방문자 수가 4만 명을 기록했으며, 정규 편성 이후에는 2배 증가했다. 이에 편성도 심야 시간대에서 오전, 오후 주요 프라임 시간대, 주 2회로 편성을 확대한다.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쿨방’은 요리 콘텐츠 전문 프로그램이다. 25일에는 ‘유가네닭갈비’, ‘올반’ 등 가정간편식을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한다. 입소문 난 뷰티 상품을 선별해 연출까지 알려 주는 ‘랜선뷰티’는 매주 월, 수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된다. 오는 26일에는 바다 보습 전문 브랜드 ‘세터필’ 로션, 크림 등을 세트 구성해 선보인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리빙 전문 프로그램 ‘같이살래?’에서는 코로나19 이슈로 건강식품을 분석해 고객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한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모바일 생방송 전용 채널 ‘몰리브’를 오픈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모바일 채널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209회 방송 동안 누적 방문자 수만 약 40만 명을 기록했다.

/김민지 기자

바삭한 콘, 풍부한 토핑... 소비자가 원하는 맛 구현

매출 250억 ‘슈퍼콘’... 빙과시장 점령

Advertorial Corner

콘과자 설탕함량 4분의1로 줄이고
‘초콜릿 코팅’ 스프레이공정 도입
토핑용 초콜릿·땅콩 50% 늘려



빙그레 ‘슈퍼콘’ 바닐라

/빙그레

빙그레는 2018년 출시한 슈퍼콘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판매 250억 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래 출시한 아이스크림 신제품 중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슈퍼콘은 빙그레가 콘 아이스크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제품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공법으로 개발한 신제품이다.

빙그레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 콘 아이스크림에 대한 니즈를 파악, 재료맛이 충실하고 바삭한 콘 과자, 풍부한 토핑의 신제품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로는 불가능해 새롭게 스프레이 공정을 도입하고 그에 걸맞는 초콜릿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얇고 균일한 초콜릿 코팅이 가능해졌고 콘 과자의 바삭함을 극대화했다.

또 빙그레가 직접 개발한 LSC(Lower Sugar Cone) 제조공법을 활용해 설탕의 함량을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 과자 특유의 단맛을 억제하고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이스크림에서 콘 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제품들은 20% 내외 인데 반해 슈퍼콘은 10% 이하로 줄여 아이스크림 맛을 극대화했다.

다음으로 빙그레가 주목한 사항은 풍부한 토핑이다. 빙그레는 토핑으로 사용되는 초콜릿, 땅콩의 양을 기존 제품 대비 50% 이상 늘려 육안으로만 봐도 늘어난 토핑의 양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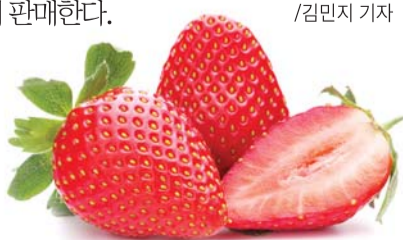
/김민지 기자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콘 과자에 있다고 결론 낸 연구진은 직접 콘 과자를 제조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바삭한 콘 과자의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 과자 내면을 초콜릿으로 코팅하는 공정이 필수다. 기존 공정으

가 높은 설탕, 금실 품종 딸기는 행사 카드로 구매시 7900원(원딸기 950g 이상)에 판매한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GS리테일, 일주일간 ‘딸기 대축제’

‘사과 한가득 골라담기’ 동시 진행

GS리테일은 슈퍼마켓 GS더프레시에서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딸기 대축제’와 ‘사과 한가득 골라담기’ 행사를

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딸기 대축제에서는 유명산지 지정농가에서 수확한 딸기를 GS리테일 전용 센터의 엄선 작업을 통해 품질과 당도가 뛰어난 상품으로 준비했다. 요즘 시기에 가장 당도

유통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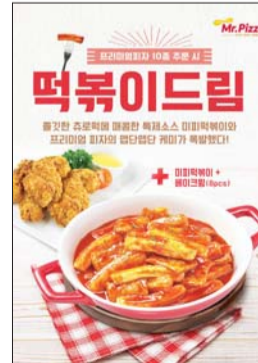
푸르밀 흑당 생크림요거트 출시

푸르밀은 국내 최초 떠먹는 ‘흑당 생크림 요거트(사진)’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흑당 생크림 요거트는 흑당의 진한 단맛과 부드러운 생크림의 조화로 깊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브라운 펄을 넣어 쫄깃한 식감을 살렸으며 그램당 1000만 마리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미스터피자 떡볶이드림 프로모션

미스터피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프리미엄 피자 주문 시 ‘미피 떡볶이’를 비롯한 인기 사이드 메뉴를 증정하는 ‘떡볶이드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피떡볶이는 매콤한 소스에 부산의 명물 고래사어묵을 듬뿍 넣었다. SNS를 통해 ‘피자 꿀조합’으로 입소문이 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민지 기자

대웅제약 ‘올로맥스’, 식약처서 신규 용량 허가 “라인업 강화로 시장확대 추진”

40·5·5mg 새롭게 허가
4개의 제품 라인업 확보
“환자 삶의 질 향상 최선”



대웅제약의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올로맥스’가 신규 용량을 허가받아 라인업을 강화했다.

대웅제약의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올로맥스’가 라인업 강화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올로맥스정 40·5·10mg(올메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을 허가받은 데 이어, 지난 19일 40·5·5mg을 새롭게 허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오는 5월 출시될 계획으로, 올로맥스는 기존에 출시된 20·5·5mg, 20·5·10mg과 함께 총 4개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올로맥스는 지난해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복합 개량신약으로, 세계 최초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올메사르탄과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암로디핀, 그리고 스타틴 계열의 로수바스타틴 성분을 결

합했다.

올로맥스는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혈압 강하 및 지질 수치 개선 효과와 더불어 정제 크기를 1cm 미만으로 축소해 환자의 복용 순응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웅제약의 특허 플랫폼 기술인 방출 속도 조절 이중정 제형을 접목해, 성분간 약물 상호작용 없이 체내에서의 흡수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성분별 약물 방출 패턴을 조절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제품력을 기반으로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7개월만에 ARB+CCB+스타틴 3제 복합제 시장 3위에 등극하며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뤄냈다. 특히, 출시 첫 달부터 8%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출시 6개월 만에 국내 상위 5대 병원 중 4곳에 입성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올로맥스 신규 용량 추가로 기존에 판매중인 올로스타, 올메텍, 올메텍플러스, 세비카, 세비카 HCT 등 고혈압 치료제의 탄탄한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대웅제약이창재 영업마케팅 부사장은 “올로맥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복약 순응도를 내세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중인 차세대 블록버스터 제품”이라며, “이번 신규 용량 추가를 계기로 처방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대웅제약의 한층 더 강화된 고혈압치료제 라인업을 통해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해열제, 간편하게 짜서 드세요”

한미약품 맥시부펜시럽 새롭게 출시
포도맛으로 어린이도 쉽게 복용



한미약품 맥시부펜시럽

국내 최초 유소아 대상 임상 3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한미약품의 유소아 해열제 맥시부펜시럽이 ‘짜먹는’ 제형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후대성은 물론 복용할 때마다 일정 용량을 덜어 써야 했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이 이번에 출시한 ‘짜먹는’ 맥시부펜은 열을 낮추는 성분인 이부프로펜의 활성 성분만을 분리한 ‘맥시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맥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보다 적은 용량으로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며, 활성 성분만을 분리함으로써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맥시부펜은 포도맛으로 약먹기를 꺼리는 어린이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다.

맥시부펜시럽은 6mL 소포장 스

틱형(1Box 10개입)으로, 1회 복용시 1포씩(연령 및 체중에 따라 증감) 스틱 그대로 짜서 복용하면 된다. 개별 스틱 형이기 때문에 외출시 또는 응급시에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맥시부펜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상비약이 될 정도로 빠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기존 맥시부펜시럽은 가정 상비용으로, 이번 발매된 맥시부펜시럽은 외출 또는 응급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소비자 성분 관심 ↑... 애경산업 ‘엄마의 선택’ 매출 급증

천연성분 베이킹소다, 구연산 등 인기
엄마의 선택 출시 이후 두 자릿수 성장

천연성분인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그리고 과탄산소다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활용도가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식품첨가물이기도 한 베이킹소다는 오염 물질을 흡착하고 연마시키는 추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청소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목적 세정 기능 외에도 소비자들의 ‘성분’에 대한 관심 증가가

매출 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케모포비아’(화학물질공포증) ‘체크슈머’(Check+Consumer)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몸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좋은 성분’을 찾는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다목적 세정제 브랜드 ‘엄마의 선택’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5% 성장하며 출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애경산업의 다목적 세정제 브랜드 ‘엄마의 선택’은 출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로 구성된 엄마의 선택은 14년 출시 이후 16년에 49.7%, 17년에 83.2%, 18년에 16.9% 성장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전자랜드가 지난 21일 벤스코리아와 MOU를 체결했다.

전자랜드-벤스코리아 MOU

오프라인 협력·판매 채널 다각화 추진

제품판매 위한 홍보·전시 등 협력

전자랜드는 지난 21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전자랜드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 디자인가구 부문 1위인 벤스코리아와 신개념 주거공간 전시매장 형성 및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전자랜드 옥치국 대표이사, 벤스코리아 황지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랜드와 벤스코리아는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

한 홍보 협력, 제품 전시 및 협찬, 온라인 쇼핑물 연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랜드는 향후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 벤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가구들을 가전제품과 함께 전시할 계획이며, 고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가구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랜드와 벤스코리아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상호 협력하고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BGF리테일, 코로나19 대한 가맹점주 지원책 마련

“안전 최우선... 휴업점포 폐기금액, 본사 100% 지원”

점포 손세정제 지원, 안내 강화
200개 업체 정산금액 앞당겨 지급

BGF리테일은 코로나19에 대한 가맹점주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CU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나 의심자 다수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방역이 실시된 점포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후 24시간 휴업을 진행한다.

휴업 점포에 대해서는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품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 제도와 별개로 휴업당일과 다음날 동안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의 폐기금액을 본사가 100% 지원한다.



수칙 안내를 더욱 강화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추가 지원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서는 ‘가맹점주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상생협력펀드를 통한 대출은 2% 금리 이하 혜택이 있다.

BGF리테일은 이날 이근준 사장(사

장) 명의의 서신을 전국 1만 4000여 점포에 전달했다. 가맹점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뜻과 함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평소와 다를 없이 원활한 점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품 공급 및 물류, 전산, 영업 시스템의 제공을 약속했다.

BGF리테일은 가맹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에 대한 지원도 펼친다. 중소협력사 정산대금 조기 지급을 이달 정산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약 200여 개 업체들의 상품 거래 및 물류 정산 대금 약 1500억 원을 평소보다 최대 2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김민지 기자 kmj@

앱 허가시 스마트기기에 의료목적 사용 가능

식약처 모바일 의료용 앱 지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으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 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 다.

/이세경 기자

아산재단, 장학생 1240명에 장학금 50억원 전달

공포 먹고 자라는 가짜뉴스

대학교 장학생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40명, 대학생 700명, 고등학생 500명 등 2020년도 아산장학생 총 1240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대학원생 장학생 40명은 의생명과학분야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30명, 해외에서 10명을 선발했다.

대학교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이 가운데에는 '성적우수 장학생' 178명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169명, 신체적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다솜장학생' 41명,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82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정몽준(뒷줄 오른쪽 여섯번째)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이 25일 '2020년도 아산장학생'에 참여해 장학생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금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도 포함됐다.

나래장학생과 다솜장학생 210명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로 월 20만원을 지원

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산재단은 지금까지 3만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74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가장 존경받는 기업' 9년 연속 1위

삼성전자서비스가 25일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평가에서 서비스센터 부문 9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기업의 신뢰도,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부문별 순위를 발표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7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간부진, 애널리스트 등 1만3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부문별 1위를 선정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도, 사회공헌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제품 점검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에서 가장 많은 180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당일 수리를 목표로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이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어디서나 신속하고 친절한 출장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기자 수첩

김나인
(산업부)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틈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격한 기침을 하며 "우한에서 왔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고함을 지르며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한 유투버가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확진 환자가 도망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확진자들의 잘못된 신상정보가 사실인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일도 있었다.

가짜뉴스는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공포와 불안감을 먹고 자라난다.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혐오를 불러넣는 기생충 같은 존재다.

최근 다시 재조명된 전염병 소재 영화 '컨테이션'에 등장하는 배우주드로는 진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역할로 분해 개나리아이백신이라는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공포없이 선동한다. 재난을 기회로 삼아 개인의 잇속을 챙기거나 관심을 받으려 하는 이기적인 형태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라는 뜻의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을 합친 '인포데믹(정보전염)'이라고 부른다.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포데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와 만나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도 수사기관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등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와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개인의 대응도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정보를 거르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극적인 글과 출처가 없는 정보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직접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찾는 등 공을 들여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때다.

/silkni@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6일 (음 2월 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벼룩 공덕이 오늘 다시 오게 되네. **48년생** 내가 독불장군(獨不將軍)이 아닌가 되돌아보자. **60년생** 오랫동안 믿을 지날 때 갖을 고쳐 쓰지 마라. **72년생** 재물이 적으나 그래도 행운. **84년생** 먼 곳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자.
- 37년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사 인색하지 않도록 힘써라. **49년생** 무관심이라도 따지기보다는 모르는 척 지나가기. **61년생** 부족하다고 업신여기다 큰코다침. **73년생** 지난 일은 빨리 잊자. **85년생** 시간을 잘 지키기.
- 38년생** 세상이 복잡하여도 살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 **50년생** 숨기고 있던 간사한 꾀를 동업자가 드러내니 오싹. **62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74년생** 배려하면 나도 존중받는다. **86년생** 소식이 오니 서류를 제출한다.
- 39년생** 그리운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이 나를 반긴다. **51년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자녀의 진중한 행동에 감동. **63년생** 기대만큼 성과도 있다. **75년생** 매파에게 소식이 오니 뜻대로. **87년생** 심한 운동으로 무리.
- 40년생** 강하게 하는 충고는 나만 힘들어진다. **52년생** 아름다운 환경은 주변이 바르기 때문. **64년생**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나에게 무리수다. **76년생** 남의 싸움에 구경하지 말라 해를 입는 일진. **88년생** 동료와 지나친 음주는 삼가.
- 41년생** 세력이 많아도 내리막길을 예상할 것. **53년생** 독야청청(獨也靑靑)도 시대에 맞게 하도록. **65년생** 부모님을 생각하여 제사 잘 지내라. **77년생** 비단웃을 입는 데다 꽃을 든 것처럼 행운이 가득. **89년생** 표정 관리에 힘써야.

- 42년생** 연금보다 지출이 많아지니 어찌할까나. **54년생** 친한 친구 소식이 상복수라 서글픔. **66년생** 거침없이 투자해도 무방. **78년생** 홀로 외로우나 왕따는 아니니 기다려보라. **90년생** 기다리던 직장에서 소식이 오니 기쁘지 않다.
- 43년생** 자녀의 훌륭한 인격은 부모의 교육에서부터. **55년생** 열을 얻은 듯 기쁜 하루. **67년생** 주변 사람 관리를 편하게 해라. **79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 배우자에게 차갑지 않도록. **91년생** 아침부터 심년 목은 체증이 해소된다.
- 44년생** 배우기도 어려웠는데 올바로 싸우기도 힘들다. **56년생** 만나면 가족끼리 싸우니 골육상쟁 같다. **68년생** 근검으로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 **80년생** 건강이 각자 최우선 행복. **92년생** 몸이 파래지도록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다.
- 45년생** 많은 재산도 2대를 가기 어려우니 잘 생각할 것. **57년생** 주변에서 최씨가 도와줄 것. **69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순간 거짓말로 변한다. **81년생** 닭의 부리라도 되려면 좀 더 성실성이 요구. **93년생** 경기로 스트레스 받실듯.
- 46년생** 흥망성쇠(興亡成衰)의 고독함. **58년생** 혼자 있다고 쓸쓸한 것이 아니다. **70년생** 부족해도 인내하면 복음이 찾아온다. **82년생** 괴로움 속에도 즐거움이 있다. **94년생** 조직에서 소속감이 있어야 할 터.
- 47년생** 배우자가 뛰어난 미인임을 나만 모른다. **59년생** 오랜 세월을 두고 변치 않은 친구를 만나다. **71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 마무리. **83년생**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 **95년생** 주변이 복잡하니 일찍 귀가하라.



김상회의四季 기도의 바람

기도는 이루어지면 이뤄질 만한 복덕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원하는 바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복덕 인연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망의 마음이나 불평을 하지 않게 된다. 앞의 글에서 "발원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뤄지지 않게 한다."라고 했다. 조금 더 의역했지마는 보현보살행원품의 원 구절은 '욕행악법 개실불성 소수선업 개속성취'(欲行惡法 皆悉不成 所修善業 皆速成就)라고 되어있다. 즉, "악한 일을 하려 한다면 성취되지 말며 선한 일이라면 모두 다 속히 이뤄지이다."라는 해석이 직역에 해당한다. 공덕을 회향한다는 '보개회향(普皆回向)' 대목의 내용이다. 지금 내가 바라는 일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실제로 이뤄진 후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차라리 이뤄지지 않는 것이 복이 된다. 필자의 지인 중에 남편의 승진을 간절히 원하는 부인이 있었다. 운은 답답했다. 예상대로 그녀의 남편은 진급에서 밀렸다. 남편이 낙담하여 있을 때 필자로부터 보현행원품 사경을 권유받은 부인은 사경을 계속하여 3편의 사경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급하게 필자를 찾아와 다짜고짜 사연을 얘기한다.

영전한 직장 동기는 직원들의 부러움 속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해외 출장지 외곽의 현장을 향하던 헬기 사고로 운명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인과 남편은 아연실색하였다. 만약 승진됐더라면 남편이 그 출장지에 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장님 말씀대로 바라는 대로 이뤄지는 게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걸 알겠어요!"라고 했다.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담할 일이 아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다면 우환은 덜해지고 공고해지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6	5	2		
2		4		6
		1	3	
5	2			
2		1		6
	4	3	2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판 브라운 저 | a9press | 15,000원

문제풀이:
3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도쿠는 가로,세로,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4	2			
2	8			1 9			
5	4		6	8			
	9	7	2	4	5	6	3
5	4			8	1		
2	6	3	1	5	8	7	
3	7			1	4		
6	1			3	8		
8	2		7	3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정답

9	2	8	7	1	9			
7	9	9	1	8	2			
8	1	9	2	9	7			
2	8	1	9	7	9			
9	9	7	8	2	1			
1	7	2	9	9	8			
9	8	1	7	9	6	2	7	8
7	8	6	8	7	2	9	1	9
9	7	2	1	8	9	7	6	8
7	6	2	8	9	1	8	9	2
1	2	8	9	6	8	7	2	9
8	9	9	7	2	8	1	9	6
6	1	8	9	7	8	9	2	7
2	9	7	6	1	9	8	8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96호

“확진자와 동선 겹칠까 걱정... 버스 손잡이도 안잡아요”

Q 르포 | ‘서울 최다 확진’ 종로구 가보니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종로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주민들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체크하며 자신과 동선이 겹치는 코로나19 환자가 있는지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 환자 33명 중 10명이 종로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24일) 오전 다이소 종각점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에 없던 진풍경이 펼쳐졌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줄을 섰는데도 자리가 모자라 매장 안을 빙 둘러 밖까지 대기 줄이 늘어난 것.

다이소 직원 A씨는 “오늘 아침에 매장 3층까지 사람들로 꽉 들어차서 깜짝 놀랐다”면서 “아마 어제(23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처음 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마스크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장당 1000원

편의점·마트·약국 마스크 동나 다이소엔 매장밖까지 대기 행렬 버스 탑승하자마자 세정제 사용

불안감에 마스크 두 겹 쓴 시민도 “식당·카페, 공용 화장실 꺼려져” 종로 보건소 일반 진료업무 중단

에 최대 3개까지, 일반용 마스크는 30개 입 한 박스(1000원)만 살 수 있다.

같은 날 종로구에서 편의점 3곳과 약국 3곳, 마트 2곳을 더 돌아봤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다. 서울YMC A 근처에 있는 한 편의점 직원은 “마스크가 하루에 20장 정도 들어오는 데 요새는 그것도 잘 안 갖다 준다”면서 “매장에 진열해놔도 순식간에 팔려서 몇 시쯤에 오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말해 주기가 어렵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종로2가에서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낀 어르신도 만날 수 있었다. 시민 김모(68) 씨는 “옛날에 폐렴을 앓았던 적



지난 24일 종로구에서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낀 시민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24일 오후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는 보건용 마스크가 품절돼 천 마스크만 판매하고 있었다. /김현정 기자

이 있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며 “이 동네에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많고 해서 아무래도 마스크 한 개로는 안심이 안 돼 두 개를 한꺼번에 썼다”고 말했다.

종로1가에서 경복궁역을 지나 옥인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7022번 버스에 올라탔다. 시민들은 버스에 타자마자 카드 단말기 옆에 비치된 세정제로 손을 소독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서인지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손잡이나 안전봉도 최대한 잡지 않으려 애썼다.

직장인 윤모(32) 씨는 “종로구에서 코

로나 환자가 10명이나 나와서 정말 불안하다”며 “버스 손잡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 화장실도 가기 조심스럽다”며 울상을 지었다.

종로 지하문로에 위치한 옥인파출소 문 앞에는 “코로나19 관련 종로구 일대 확진자 발생 및 국내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사용 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달라”는 당부의 글이 붙어 있었다.

파출소 옆 종로구 보건소 뒤편에는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하얀색 방역복을 입은 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

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오후 4시 20분경 방역차가 보건소 일대를 소독하기 위해 들어왔다.

종로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가 폐쇄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일반 진료는 안 되고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종로구 보건소는 결핵관리를 제외한 만성질환,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의 진료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보건소의 기존 진료를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든탑 무너지나... 일회용품 재등장

서울시,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소비자-업체간 일부 혼란 야기 친환경 정책 경각심 느슨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다시 등장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친환경 정책에서는 ‘뒷걸음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 움직임이 확산하며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다시 일회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 컵 사용이 불가능하다. 종이컵은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다수 커피전문점에서는 자발적으로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초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중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 인근을 규제 완화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이에 충북 청주시·충주시, 인천 부평구, 대구 중구, 서울 서초구 등은 관내 전체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초 서울 서초구 등은 관내 전체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발표가 늦어지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이 달라 서울 다수 카페와 식당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허용 여부가 동네마다 다르다 보니 소비자의



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김민지 기자

불편도 가중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24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소비자와 업체의 혼란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로 허용 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다회용 식기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나온 예방책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줄이기, 환경 규제 등 사회 분위기와 정책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서울 서초구 A커피전문점 직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장 방문 고객 중 일회용 컵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안이 중대한지라 다회용품 사용을 걱정하는 고객 많다”며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은 식기세척기로 고온의 물을 사용해 오랜 시간 다회용 식기를 세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kmj@

불황 모르던 명품도 코로나19에 맥 못쐬

계획구매 많아 외부영향 적었지만 경보단계 ‘심각’ 격상하자 매출 뚝 전체 매출 39.5%, 명품 19%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만해도 마스크 쓰고 줄서서 기다렸던 명품 매장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역감염 확산 전까지는 ‘나홀로 성장’ 지난 1~23일 전년 동기 대비 주요 백화점의 화장품, 패션, 식품을 비롯한 전체 매출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해외 명품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2월 중순만 해도 명품관은 평소와 차이가 없었다. 주요 백화점에는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매장에 비치된 손소독제, 그리고 매장 직원들이나 매장을 찾은 손님들 모두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 지난 11일에는 기다리던 제품이 들어왔다는 소식으로 잠실 롯데백화점에 비뉴엘 샤넬 매장에 100여명의 대기 인원이 몰린 바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가의 유명브랜드 제품은 중동구(중·동·남구)보다는 목척(목동·척동)에 소비를 하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입고 예약제’ 등 오래 전부터 계획해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소비재의 경우 코로나19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굳이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채널 있다. 그러나 명품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 명품관의 25일 오전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소비자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현재는 한적한 모습을 보인다. /조효정 기자

실물을 보고 구매해야 한다. 명품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확실한 동기화 제품이므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영향에도 소비의 가변성이 적다”고 부연했다.

K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품 매장은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점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갔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피하지 못한 코로나19 여파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던 해외 명품도 결국 경보단계 ‘심각’을 겪은 지난 22~23일 기준으로 매출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대백화점의 1~23일 전체 매출(누계)은 전년 대비 11.7% 줄어든 데 반해 명품 매출은 9.3%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인 22~23일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체 매출이 39.5% 감소한 데 이어 명품도 19.1% 줄었다.

롯데백화점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여파로 지난 주말 3일간 소공동 본점을 휴점해 2월 전체 매출 집계가 불가능하다. 소공동 본점을 제외하고 지난 17

일부터 23일까지 전체 매출이 20.4% 감소, 명품 10.4%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지난 주말 22~23일 기준으로 전체 매출은 작년 동기 34% 감소하고, 명품은 2.2%로 증가율이 크게 줄었다.

명품 코스메틱 B브랜드 매장을 방문한 정 모(31) 씨는 “이렇게 사람이 적은 때일수록 명품 의류 제품을 맘편히 착용해 보고, 명품 코스메틱 제품은 다양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어서 좋다”며 “그런데 사람이 적은 걸 보니 나도 두려워진다”고 말했다.

◆소비 양극화 심화되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전부터 국내 경기악화로 소비 양극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이전부터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치 소비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 소비층은 생필품만을 구매했고, 상위 소득층은 고가의 제품 소비가 이뤄졌었다”며 이번 명품 소비의 특이한 패턴이 코로나19만의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Harrington Tower 

살아도 좋고, 투자는 더 좋은 여의도 해링턴타워 196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

여의도 해링턴타워 196

출근은 여의도, 퇴근은 해링턴타워로!
서울 2030플랜에 따라 강남, 광화문과 더불어
서울 3대 도심축으로 급부상하는 영등포의 중심!
여의도 20만 배후 주거지에 투자하십시오.

- BIG 1** 영등포개발의 최대수혜지 (국제금융업무지구 / 영등포뉴타운)
- BIG 2** 트리플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
- BIG 3**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등 풍부한 주거환경 인프라
- BIG 4** 루프가든, 공유주방 등 프리미엄급 커뮤니티 시설
- BIG 5**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



 여의도까지
지하철 1정거장

 신길역 400m
신안산선 (예정)

 영등포
뉴타운 개발

 중도금 무이자
60%

시행수탁자:  KOREA trust
시행위탁자:  Daejeon
시공사:  진흥기업(주)
분양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성 또는 허가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일러스트,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012-0808

인터뷰 영종·을왕 '장수콜택시' 김성기 대표



영종·을왕콜 택시중 69명의 기사분들이 어르신들의 무료 택시운행 서비스인 '장수콜택시' 운행 봉사에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주민이 애용하는 ‘택시’ 돼야죠”

교통약자 위한 무료 서비스 ‘콜아웃제’ 기사 불친절 방지

영종국제도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면적이 넓다보니 자가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다. 공항철도도 도심의 지하철도에 비해 늦게 첫차(5시 30분)를 운행한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동안 영종국제도시에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는 영종도 운행 택시의 폭리(?)와 불친절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영종·을왕콜은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는 김성기 대표를 만났다.

—간 섬 밖으로 나갈 때 왕복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편이 많았다.

“현재 택시가 손님을 모시지 않고 빈차로 섬 밖으로 나가는 경우 통행료를 먼저 받습니다. 하지만 섬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손님의 탑승에 관계없이 통행요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영종도에서 손님을 태우고 나가는 경우 대부분의 택시들이 왕복통행료가 포함된 가격을 손님과의 협의해 운행해 왔습니다. 이에대한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섬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택시 미터 요금으로 운행합니다. 다만 통행료와 돌아오는 거리 등을 감안해 콜비(3000원)만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의 불친절이 도마위에 오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현재 영종도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대략 250대 정도입니다. 서

비스 교육을 해도 수입이 열악한 상황이라 기사들이 자주 바뀌는데 올해 들어서 서비스평가 ‘콜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분의 불친절이 명확하다면 일정기간 해당기사의 콜전용 단말기(TRS)를 정지시킵니다.”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수콜택시는 저희 회사에서 제안해서 영종국제도시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등 4개동에 65세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는 서비스입니다. 각동에서 20분씩을 추천받았고 매월 5장의 이용권을 드리죠.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장수콜택시에 대한 구청의 지원이 있는지.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구청에선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사들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죠. 현재 69명의 기사가 동참하고 계십니다.

—스마트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플랫폼의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영종국제도시에도 수요응답형콜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인데 택시업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절반 이상 손님이 줄었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차량 소독제로 매일 수차례 소독도 하는 상황이지만 유동인구가 줄다보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교통수단의 합법화 또 콜버스가 정식적으로 운행되면 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택시업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취재본부=김정근 기자 mirex@

광주시, 방호복 재고량 ‘적신평’

민간업체 등 확보방안 강구해야

대구 상황으로 추가지급 받지 못해 보유하고 있는 방호복 1000세트 뿐 ‘환자 증가시 제대로 대응 못 할지도’

광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송요원 등을 감염에서 보호할 방호복 재고량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2곳과 격리시설 등 총 5곳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 시설을 운영할 의료진과 구급·보안요원 등이 착용할 레벨D급의 방호복세트는 재고가 많지 않은 상태다.

방호복세트는 보호안경(고글)과 장갑, 방호복, 덧신, 마스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회용이다.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방호복 수량은 1000세트이며 동·서·남·북·광산구 5개 자치구도 각각 200~300세트 정도 보유하고 있다.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직원은 5개 구청 입구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이다.

지난 23일 이후 광주에서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각 구에서 하루 10~20세트 정도가 소진되고 있다.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송요원까지 착용하기 때문에 하루평균 30~40세트가 사용된 뒤 버려지는 것으로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24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직 공무원들이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뉴스1

알려졌다.

하지만 증상을 보이는 의심 환자가 급증해 전남대·조선대병원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수용이 안 될 경우 감염전담병원을 가동해야 해 방호복 수량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음압병상은 14개 뿐으로 현재 7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감염전담병원과 보호시설 등 5곳에서 활동하는 의료진과 안전·행정요원 등에게 하루 최소 200세트를 지급하면 현 재고량으로는 1주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최소 5000~1만세트를 보유하면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 한달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정부에 방

호복 등을 요청했지만 대구 상황이 급박해 지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발생하면 방호복 등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바라지 말고 민간업체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9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은 퇴원, 7명은 전남대·조선대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발열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한 시민은 632명이 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상주시 88억 투입,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FTA에 따른 과수 농가 경쟁력 ↑ 지역농협 지도·감독아래 추진

경북 상주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7대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분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주 및 비가림시설, 관정·관수관비

시설, 우량 품종 갱신, 재해예방시설 등 16개 사업이다.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FTA 체결에 따른 과수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사업 참여자는 경북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 9곳)에 신청한 2089명 중 ‘상주시 과수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1

일 1427명이 확정됐다.

이 농가들은 지역농협의 교육과 지도·감독 아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윤해성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과수분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들이 국비로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상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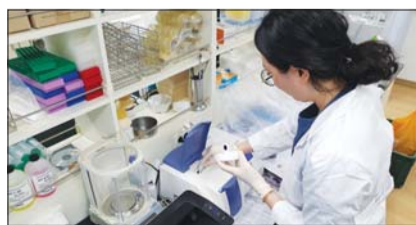
보성군, 농가 대상 부숙도 컨설팅 추진

다음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보성군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컨설팅 지원 및 사전검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영향을 받는 보성군 축산 농가는 총 478농가이며 이 중 컨설팅을 신청한 농가는 421농가로 약 88.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70농가 에 대



보성군은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에 앞서 부숙도 컨설팅·사전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부숙도 사전 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오는 3월 24일까지 전체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고흥군 드론 소독방역 실증

고흥군이 드론을 활용해 소독방역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인력 및 차량 중심의 소독 방식에서 탈피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방법이 필요해졌다.

이에 군은 천풍 무인 항공기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방역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김용환 기자 jiiacecom@

오늘의 날씨

2월 26일(수)
음력: 2월 3일

수도권 날씨
3 ~ 11°C

운중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09 | 해질 / 18:22

연천 1/10, 동두천 1/10, 가평 0/10, 양평 3/11, 용인 4/12, 평택 3/12, 수원 4/12, 인천 3/9, 서울 3/11, 파주 2/10, 백령도 4/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마트시티 특구’ 1년... 시민 일상에 스며든 미래기술

서울시, 작년 성동구·양천구 지정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정지선 위반 ↓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 만족도 높아

#. 성동구 행당동에 거주하는 중학생 A군은 학원을 가기 위해 항상 건너던 횡단보도가 작년에 ‘스마트 횡단보도’로 바뀐 뒤로 길을 건널 때마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 밤에는 집중 조명이 횡단보도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고, 빨간 불일 때 실수로 보도 경계선을 넘어가면 “위험하오니 안전선 뒤로 물러나 주세요”라는 안내 음성도 나온다.

#. 양천구 목동5단지에 살고 있는 B씨는 몸이 불편해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차를 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작년에 주차 감지센서와 CCTV로 불법주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가 설치된 후로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게 편리해졌다. 차량 운전자들의 양해 주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생



성동구 행당동 ‘스마트 횡단보도’

활 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시티 특구’로 성동·양천구를 지정한 뒤 1년여 만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는 교통·안전 분야 사업으로 보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14개 횡단보도에 다양한 신기술 센서가 집약된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하는 사업을 벌였다.

스마트 횡단보도에선 보행신호등에

따라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이 녹색·빨간색으로 신호를 알린다.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차도 가까이 접근할 경우 위험을 알리는 경고 음성이 나온다.

성동구청과 무학여고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전인 2019년 9월 1~15일과 후인 2019년 10월 16~31일의 차량정지선 위반 건수를 비교하면 2만 4000건에서 7000건으로 70% 넘게 줄었다.

양천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서울시

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하면 음성안내로 불법주차임을 알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를 시험 중이다.

이 서비스는 감지센서로 주차를 인식하고 CCTV로 차량번호를 조회해 등록된 장애인차량인지 확인한다.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다른 구역으로 이동 주차해 주세요”라는 음성 안내와 함께 경광등이 켜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80면에서 올해

1월 14~30일 시험한 결과 주차를 시도한 3628대의 차량 중 28%인 1016건이 출차했고, 이는 모두 비장애인 차량이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밖에 양천구에서는 독거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와 스스로 고장 유무를 관리하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동구에서는 자동차 도장업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감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원격관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내 성동구에서는 ‘스마트 스킵존 서비스’, 양천구에서는 ‘가로등 활용 전기충전 서비스’ 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2019~2021년 시비 30억원과 구비 6억원이 투입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란 멀리 있는 미래도시가 아니라 지금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삶의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車 환경부담금 내달 20일까지 납부시 감면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유도 부담법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3월 신고시 2기분 부과금 10% 할인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20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내달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올해 1월 연납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1·2기분 모두에 대해 10% 감면을 받지만 3월 연납신고와 납부신고를 할 경우 2기분 부과금만 10% 할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31일이다.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

로 내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이동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지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 등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종교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신천지, 코로나19확진자 소굴... 명단 정확도 의문”

박원순 서울시장 7대 종교인 만남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참석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신천지는 일종의 확진자들의 소굴”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아직 전체 신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오후에 제출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그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렇지 않아서 큰 문제”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신천지 시설 폐쇄나 명단 요구는 종교활동 통제·억압이 아니다”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목사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진원지 역할을 한 부분을 사사롭게 넘길 것이 아니라, 밀교적 성향을 가지고 이웃 종단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종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교인들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박 시장에게 대책을 문의했다.

이홍정 목사는 “마트에 마스크 구입률이 굉장히 길게 생기는데, 앞으로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마스크를 배포하는 내용이 있나”고 물었다.

이 목사는 “마스크를 무상 지원받아야 할 계층이 많은 텐데, 이 부분을 판매로 대신하기보다 해외의 민간 국제 구호단체로부터 마스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그런 마스크는 당연히 받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며 “서울시는 건강 취약계층에 직접 나눠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가 1천만개 이상 생산되고 있어서 수량으로는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며 “수급 과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점, 일부에서 매점매석이 여전한 점, 상당수는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은 “보급 과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며 “차라리 행정기관이 보급제를 하면 사재기도 없지 않겠나”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의료 인력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

지자체서 조정업무 진행 가능

서울시는 지난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90건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가맹점 76건, 대리점 14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13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

게 됐다.

분쟁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11건 ▲거래상 지위남용 8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위원회가 처리해 절약된 비용이 5억9000여만원이라고 자체 추산했다.

시는 지난해 2471개(전국 대비 39%) 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했다. 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이다.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산업] 삼성전자 모바일 D램 영화 9편 1초면 '끝' 08



Life

[라이프] 46살 초코파이 제2의 전성기 1



“안전교육은 ‘폭풍 속 등대’... 평범한 하루 위해 예방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구미소방서 전진영 소방관

“당신의 하루,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려운 요즘,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이가 있다. 이른 아침 경북 구미소방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유치원,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진영 소방관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여름 ‘하이-하이(Hi-High·무더운 여름,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경상북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선 1위를, 지난해에는 전국 소방안전 강사 교육발전대회에서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 늘어나는 소방안전교육 일정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그를 만나기 위해 구미를 찾았다.

◆ 피해 발생 전 예방 ‘소방안전교육’

최근 몇 년간 포항지진, 충북제천스푸츠센터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 소방관은 “안전교육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도 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부터 하자는 의식이 확대되면서 중요성 또한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아졌다. 그는 “짧은 교육시간 동안 위험상황에도 기억할 수 있을만한 예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며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흥미가 있어야 집중하기 때문에 만화나 동요 등을 이용하고, 어르신은 지루한 걸 싫어해 율동을 많이 넣어 ‘재미있는 손녀가 와서 안전을 알려주는 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교육이 ‘폭풍 속 등대’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햇볕이 짙고 날씨가 좋을 때 등대는 필요 없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어두울 때 등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며 “안전교육도 일상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땀 필요치 않지만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살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 안전교육 프로그램 필요

교육강사로 썼을 때 가장 짜릿하다는 전



전진영 소방관이 구미소방서, 신평초서 화재 시 대피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다.

학교·관공서 등 소방안전교육 담당 안전교육, 위급한 상황의 ‘빛’ 역할

사회취약계층 대상 교육 미흡해 장애인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마스크 착용·집 안 소화기 구비 등 사소한 예방이 큰 위험 막을 수 있어

소방관도 고민은 있었다.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것.

전 소방관은 “얼마 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면서 나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안 돼 있는지 깨닫게 됐다”며 “머리 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돼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화로 통역해 주는 분과 동행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 장애 등으로 불편한 이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피·예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며 “교육대상이 확대될수록 나

를 비롯한 많은 소방안전교육강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화재나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신중해지는 것 같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숨은 일등공신은 ‘남편’

전 소방관은 올 초 베스트 소방공무원에 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경상북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받은 결과다.

그는 “동료들의 응원이 없었으면 절대 받을 수 없던 상이었다”며 “현장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받게 돼 부끄러웠다.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잘 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준 숨은 일등 공신으로 남편을 지목했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는 5~6개월 동안 남편이 독박 육아를 했었다”며 “힘든 내색 없이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어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었고, 너무 고맙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질문에 ‘유리창의 법칙’을 소개했다. 유리창의 법칙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는 “재난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화재를 대비해 집 안에 작은 소화기를 두는 것 등은 사소해 보이지만 위험 상황을 막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소한 것을 넘기지 말고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전진영 소방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018년 소방안전 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진영 소방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전진영 소방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 /구미소방서

/유토이미지